


사회·문화

기출의 파급효과

사회 · 문화

PART I . 개념 파트

Chapter 1. 내용별 선지 정리_10p

Chapter 2. 기출 문제_34p

- (1) 사회 · 문화 현상 vs 자연 현상_34p
- (2) 사회 ·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_40p
- (3) 사회 · 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_47p
- (4) 자료 수집 방법_57p
- (5) 사회 · 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_64p
- (6) 사회화 & 지위와 역할_67p
- (7)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_73p
- (8)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_88p
- (9) 일탈 이론_96p
- (10) 문화의 의미와 속성_104p
- (11) 문화 이해 태도 및 문화 이해의 관점_113p
- (12)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_120p
- (13) 문화 변동_130p
- (14)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_141p
- (15)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_145p
- (16) 사회 변동 이론_157p
- (17) 사회 운동_163p
- (18) 현대 사회의 변화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_169p

PART II. 문제 풀이법 파트

Chapter 1. 구분 유형_176p

Chapter 2. 개방형 문제 유형_184p

Chapter 3. 채점 및 카드 게임 유형_204p

(1) 채점 유형_205p

(2) 카드 게임 유형_226p

PART III. 표 파트

Chapter 1. 비율과 변화율_230p

Chapter 2. 가중평균_238p

Chapter 3. 인구 부양비_248p

Chapter 4. 사회 보장 제도_272p

(1) 가중평균을 활용한 문제_273p

(2)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푸는 문제_294p

(3) 일반 사회 보장 제도 문제_306p

Chapter 5. 계층 이동_320p

(1) 2022학년도부터의 출제 유형_322p

(2) 2020학년도까지의 출제 유형_338p

Chapter 6. 임금 및 성 불평등_354p

Chapter 7. 빈곤 유형_368p

저자의 말

이 책의 대상

이 책은 사회·문화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책의 방향성은 수험생이 수능 실전 연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기 전에 반드시 개념을 1회독 이상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회독 이상이란, 단순히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학습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개념 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책만의 특징점

1. **이 책은 사회·문화 문제를 풀 때 학생이 가져야 할 태도와 행동을 실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개념을 나열하는 식의 서술에서 벗어나, 실전에서 필요한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2. **이 책은 수험생이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기출 문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실전 개념에 대해 최대한 많은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술했습니다.
3. **이 책을 쓸 때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항상 생각했습니다.**
제가 수험생일 때, 시중에 이러한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형식의 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기출 분석서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이 책에서는** 단순히 교과서 단원에 맞춰 순행적으로 문제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나름의 체계를 갖춰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5. **이 책에 있는 모든 <보기> 문제는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기> 문제가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찍어서 맞추었을 때, 본인이 그 문제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극한 상황에서 실력을 끌어올리도록 만들기에는 <보기>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활용법

1.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반복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쓸 때 수능 사회·문화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만 적었기 때문에 이 책을 통달한다면 어려운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2.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출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 문제를 푸는 데 걸린 시간보다 얻어간 지식의 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와 집요하게 싸워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3. **이 책은 본문 못지않게 해설도 중요합니다.** 이 책에 있는 모든 해설은 저자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서술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를 풀고 본인의 풀이와 해설을 비교한다면, 문제만 푸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나열된 선지의 내용을 모두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몰랐던 내용에 표시하면서 회독할 때 모르는 것 위주로 선지를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수능 사회·문화의 기조는 매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능 전까지 이 책으로 전반적인 학습을 하고, 올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을 반드시 분석하길 바랍니다.

기출된 문제와 당해 시행되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조화롭게 분석하면 충분히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급의 기출효과



cafe.naver.com/spreadeffect
파급의 기출효과 NAVER 카페

기출의 파급효과 시리즈는 기출 분석서입니다. 기출의 파급효과 시리즈는 국어, 수학, 영어,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사회·문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킬러 이상 기출에서 얻어갈 수 있는 '꼭 필요한 도구와 태도'를 정리합니다.

'꼭 필요한 도구와 태도' 체화를 위해 관련도가 높은 준킬러 이상 기출을 바로바로 보여주며 체화 속도를 높입니다. 단시간 내에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재가 설계되었습니다.

학습하시다 질문이 생기신다면 '파급의 기출효과' 카페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재 인증을 하시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출의 파급효과 팀 소속 오르비 저자분들이 올리시는 학습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 저자 분들의 콘텐츠 질문 답변도 교재 인증 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https://cafe.naver.com/spreadeffect/15>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킹버드



mockingbird.co.kr

수능 대비 온라인 문제은행

모킹버드는 수능 대비에 초점을 맞춘 문제은행 서비스입니다. AI 문항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의 학습에 최적화된 맞춤형 모의고사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수능 성적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수학, 과탐을 서비스 중입니다.

문항 제작과 검수에 기출의 파급효과 팀뿐만 아니라 지인선 님을 포함한 시대/강대/메가 콘텐츠 팀에서 근무 하였고 여러 문항 공모전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는 여러 문항 제작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웹 개발과 알고리즘 개발에는 서울대 컴공, 카이스트 전산학부 출신 개발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모킹버드를 통해 싸고 맛좋은 실모를 온라인으로 뽑아 풀어보고,
AI 문항 추천 알고리즘 기술의 도움을 받아 학습 효율을 극대화해보세요.
가입만 해도 기출은 무제한 무료 이용 가능하고, 자작 실모 1회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Part
01

개념 파트



Chapter 01 내용별 선지 정리

comment

1. 연구 윤리, 사회 운동, 사회적 소수자와 같이 독해가 중요한 내용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2. 사회화 & 지위와 역할에서 나오는 개념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3. 기출의 모든 선지를 다룬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지만 정리하였습니다.

| 사회 · 문화 현상 vs 자연 현상

(1) 사회 · 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의 공통적인 특징

-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 보편성이 나타난다.
-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2) 사회 · 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 가치 함축적이다.
-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특수성이 나타난다.
- 자연 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강하다.
-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당위 법칙을 따른다.
-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 인간의 가치가 반영되어 나타난다.

(3) 자연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몰가치적이다.
- 사회 · 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분명(명확)하다.
-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사회 · 문화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다.
-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항상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 사회 ·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1) 기능론, 갈등론의 공통 내용

- 사회 제도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 사회 · 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 개인의 행위를 구속(강제)하는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 개인의 행동이 개인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강제력에 의해 규제된다고 본다.
- 행위자의 능동적, 자율적 측면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1) 기능론에만 해당하는 내용

-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사회 각 부분의 통합과 균형을 강조한다.
-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
-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합의를 중요시한다.
- 집단 간의 대립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본다.
- 사회를 유기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
-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 사회의 각 부분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a point of criticism

- 지배 집단(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2) 갈등론에만 해당하는 내용

- 사회의 안정보다는 변동을 중시한다.
-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대립과 투쟁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 사회적 갈등을 필연적 현상으로 이해한다.
-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 사회의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설명한다.
- 사회 제도를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 사회 규범이 지배 집단의 합의에 의해 구성된다고 본다.
- 개인의 행동은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 규범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본다.
-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 관계에 주목한다.

(2)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만 해당하는 내용 (미시적 관점)

-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과정을 중시한다.
-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본다.
-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발생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 개인이 구성해 내는 생활 세계를 중시한다.
- 인간을 능동적인 주체로 전제한다.
-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상황 정의에 기초한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 상징을 통한 개인 간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3)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모두의 공통 내용

-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I 자료 수집 방법

comment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비교하는 문제가 주로 등장하기에 기출 문제의 출처와 비교 대상을 가져왔습니다.

	실험법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자료 수집 통제 순서	1	2	3	4
실제성 높은 순서	4	3	2	1

(1) 24학년도 수능 - 참여 관찰법, 질문지법, 문헌 연구법

-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 질문지법
-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 질문지법
-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하다 : 질문지법

(2) 24학년도 9월 평가원 -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한다 : 면접법, 참여 관찰법
-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 참여 관찰법
-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다 : 질문지법, 면접법
-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 질문지법

(3) 24학년도 6월 평가원 - 질문지법, 면접법

-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기 용이하다 : 면접법
-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 질문지법
-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 질문지법, 면접법

(4) 23학년도 수능 -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 : 질문지법
- 인과 관계 파악을 통한 법칙 발견에 유리하다 : 질문지법
-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 질문지법

(5) 22학년도 수능 - 문헌 연구법, 질문지법, 면접법

- 면접법은 문헌 연구법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크다.
- 질문지법은 문헌 연구법과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 질문지법은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가능하다.

(6) 22학년도 9월 평가원 -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모두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모두 경험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
- 면접법, 질문지법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

(7) 22학년도 6월 평가원 -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면접법

-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면접법 모두 1차 자료의 수집용으로 활용된다.
- 참여 관찰법, 면접법은 질적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 참여 관찰법은 생생한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다.

(8) 21학년도 수능 -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 면접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조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9) 21학년도 6월 평가원 - 질문지법, 실험법, 참여 관찰법

- 질문지법은 참여 관찰법에 비해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다.
-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 실험법과 달리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10) 20학년도 수능 - 면접법, 문헌 연구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 문헌 연구법은 면접법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작다.
- 질문지법은 참여 관찰법에 비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 면접법,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 문헌 연구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에 사용 가능하다.

(11) 20학년도 9월 평가원 -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문맹자에게 사용하기에 불리하다.
- 참여 관찰법은 면접법에 비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제하기가 곤란하다.
-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일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12) 19학년도 수능 - 질문지법, 면접법, 실험법

-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13) 19학년도 6월 평가원 - 실험법, 질문지법, 면접법

-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하다.
- 면접법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쉽다.
- 실험법은 인위적으로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기에 용이하다.
- 질문지법은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 면접법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실험법에서만 쓰이는 용어이다.

| 사회화 기관,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

comment

1. 편의상 사회화 기관과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을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 기출 문제에 확실한 근거가 없는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1)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비공식 조직 $\subset$ 자발적 결사체 $\subset$ 이익 사회 (220607)
- 자발적 결사체에는 친목 집단(동호회 등), 이익 집단(~협회 등), 시민 단체가 있다.
- 빈곤층, 보조 출연자, 관객들은 사회 집단이 아니다. (201107)
- 모든 사회 집단은 준거 집단이 될 수 있다. (200908)
- 배역은 지위가 아니다. (200906)
- 소방공무원 채용은 사회화가 아니다. (200606)

(2) 기출 사례

- 가족 :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1차적 사회화 기관, 공동 사회, 1차 집단
- 또래 집단, 어릴 적 동네 친구들 :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1차적 사회화 기관, 공동 사회, 1차 집단
- (비공식 조직이 아닌) 동호회·동창회, 종친회 :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익 사회, 자발적 결사체
- 학교, 대학교 내 ○○과, 대학원, 학원 : 공식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이익 사회, 공식 조직
- 회사, 회사 내 ○○팀, 방송사, 경찰청, 프로 축구팀, 영화 제작사 등 :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이익 사회, 2차 집단, 공식 조직
- 사내 동호회 :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익 사회, 자발적 결사체, 비공식 조직
- 시민 단체, 이익 집단(협회, 노동조합 등) :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익 사회, 2차 집단,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 총동창회 :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이익 사회, 2차 집단,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 유치원 : 이익 사회 (210604)

※ 정당 : 2차 집단 (210604)

Ⅰ 공식 조직의 운영 방식 (관료제, 탈관료제)

(1) 관료제의 특징

-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2) 탈관료제의 특징

-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3)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공통적인 특징

- 공식적 규약과 절차에 의해 구성원을 통제한다.
-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No	비교 기준	비교 결과
1	과업 수행 절차의 예측 가능성	관료제 > 탈관료제
2	연공서열(경력)에 따른 보상 중시	관료제 > 탈관료제
3	업무의 전문화, 표준화, 세분화, 분업화 정도	관료제 > 탈관료제
4	의사 결정의 분권화 정도	관료제 < 탈관료제
5	조직 구성원(업무 담당자)의 재량권 및 자율성 중시	관료제 < 탈관료제
6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용이한 정도	관료제 < 탈관료제
7	구성원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용이한 정도	관료제 < 탈관료제
8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정도	관료제 > 탈관료제
9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정도	관료제 > 탈관료제
10	성과에 따른 보상 중시	관료제 < 탈관료제

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1) 사회 실재론만의 내용

-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라고 본다.
- 사회 규범의 구속력이 개인의 자율성(자유 의지)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 개인의 속성은 사회의 속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한다.
- 사회 현상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개인의 의식보다 사회 제도와 구조에서 찾는다.
-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의 의식 개선보다 사회의 제도 개혁을 강조한다.

(2) 사회 명목론만의 내용

- 사회의 속성은 개인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사회 규범은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에 존재한다고 본다.
-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사회 현상이 형성된다고 본다.
-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
- 사회는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고 본다.
- 사회는 개인의 행위 지향과 그에 따른 결과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제도나 구조보다는 개인의 의식이나 행동에서 찾는다.
-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도의 개혁보다 개인의 의식 개선을 강조한다.
- 사회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 사람들의 자율적·능동적 노력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어 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라고 본다.
-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능력을 합한 것과 같다.
-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 사회 현상은 개인의 행위나 심리 상태로 환원된다.
- 개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I 일탈 이론

(1) 아노미 이론

- 일탈 행동의 원인을 거시적 측면에서 찾는다.
-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1-1)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사회 규범의 정립을 제시한다.
- 일탈 행동의 대책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중시한다.
- 일탈 요인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의 부재라고 본다.
-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규범의 정립을 강조한다.
- 급격한 사회 변동과 전통적 규범의 통제력 약화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1-2) 머튼의 아노미 이론

-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중시한다.
- 중상층 계층보다 하층 계층의 범죄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일탈 행동 예방 방안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지지할 것이다.
-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의 부족을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2) 차별 교제 이론

- 일탈 행동이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 문화를 학습한 결과임을 강조한다.
-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정상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제시한다.
- 사람들이 일탈 성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일탈 행동을 사회적으로 학습하여 일탈자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 일탈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본다.
- 일탈 집단 대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가 일탈 행동을 억제한다고 본다.
- 일탈에 우호적인 가치관의 학습에서 일탈이 비롯되었다고 본다.

(3) 낙인 이론

- 1차적 일탈에 대한 원인 규명보다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 일탈자의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 일탈 행동에 따른 부정적 평판이 개인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부여된다고 본다.
- 일탈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오히려 일탈 행동을 유발한다고 본다.
- 일탈이 행위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 일탈 행동에 대한 신중한 규정을 일탈 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강조한다.
- 최초의 일탈보다는 일탈 행동을 반복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지속적인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 규범을 위반한 행동이 모두 일탈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4)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의 공통적인 내용

-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에 주목한다.

(5) 아노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의 공통적인 내용

-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본다.

| 문화의 의미와 속성

(1) 문화의 의미

1) 좁은 의미의 문화 : 발전되고 세련된 것처럼 특정 의미만 나타냄, 문화에 대한 평가적 의미가 내포

- 문화생활, 문화 시설

2) 넓은 의미의 문화 : 생활 양식의 전체를 의미함

- 한국의 독특한 야구 문화, 조직 문화, 여가 문화, 대중문화, 문화적 환경, 건축 문화

(2) 문화의 구성 요소

1) 물질문화

- 야구 방망이, 온라인 중개 플랫폼 기술, 동영상 전송 기술, 편집 기술, 정보 통신 기술, 스마트폰

2) 비물질문화

- 법률, 은어와 속어, 예술, 풍습, 육식 문화

(3) 문화의 속성

comment

1. 단일한 문화의 속성만 나타나지 않는 기출 문장은 ‘그중 가장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 안에 넣었습니다.

1) 공유성 → 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를 제시하면 대부분 공유성이 존재함

-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의 토대가 된다.
- 문화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 문화가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 문화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구속함을 의미한다.

(사례)

- 기성 세대가 청소년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줄임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 배트 플립이 한국 야구에서는 일종의 볼거리로 여겨지지만, 미국 야구에서는 홈런 맞은 투수를 자극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 미국 야구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한국의 배트 플립 문화가 놀랍고 신기할 수밖에 없었다.
- 북아메리카에서 유럽계 여성에게 단발은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원주민 여성에게 단발은 상중(喪中)임을 의미했다.

2) 학습성

- 개인의 사회적 행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습득된다.

(사례)

- 폭력성을 발산하는 기사들의 문화를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따라 했다.
- 타고난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성 역할도 사회 속에서 후천적으로 획득된다.
-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운동 선수 갑은 처음에는 현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틈틈이 현지 언어를 공부하였고 지금은 능숙해져 팀 동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3) 축적성

- 문화는 세대 간 전승을 통해 점차 복잡하고 풍부해진다.
- 문화가 상징체계를 통해 전승되면서 보다 풍부하게 축적됨을 보여 준다.
-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더해지면서 문화 요소가 풍부해진다.
- 문화가 계승되고 발전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4) 전체성(총체성)

- 문화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로서 존재한다.
- 문화가 여러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 준다.
- 문화 요소들이 관련을 맺으며 하나의 체계(전체)를 형성한다.
-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요소의 연쇄적 변화를 가져온다.

(사례)

- 물리적 폭력 수단이 중앙 권력에 집중되자, 일상에서는 폭력을 삼가고 예의와 교양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었다.
- SNS의 확산이 가져온 뉴트로 열풍은 패션, 예술은 물론 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 세탁기 발명으로 가사 노동 부담이 줄어들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다.

5) 변동성

-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이 변화된다.
-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변화함을 보여 준다.
-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특성이 소멸되기도 한다.

| 문화 이해 태도 및 문화 이해의 관점

(1) 문화 이해 태도

1) 자문화 중심주의만의 내용

-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타문화와의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자기 문화의 가치만을 중시한다.
- 자문화를 다른 사회에 이식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 문화 제국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타문화와의 공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 자기 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 다른 사회의 문화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2) 문화 상대주의만의 내용

-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자문화를 낮게 평가한다.
-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 타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다.
- 자신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본다.

3) 문화 상대주의만의 내용

-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를 존중한다.
- 각 사회의 문화가 형성된 역사와 사회적 맥락을 중시한다.

4)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의 공통적인 내용

-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한다.
-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본다.
-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본다.
-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2) 문화 이해의 관점

1) 총체론적 관점

- 문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
- 다양한 문화 요소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 문화가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 자연 환경, 관습, 정치 제도 등 다양한 문화 요소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연구
- 문화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2) 비교론적 관점

- 여러 문화를 비교하면서 공유되는 보편성을 파악해야 한다.
- 보편적 문화 현상을 바탕으로 특정 문화 현상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한다.
- 문화 간 비교를 통해 자기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3) 상대론적 관점

- 사회의 특수한 환경과 역사 속에서 문화를 파악해야 한다.
- 모든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해당 사회의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문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

(1) 주류 문화

- 한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

(2) 하위문화 (반문화+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 또는 특정 영역의 사람들만 공유하는 문화
-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킨다.

(사례)

- 한 사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화 (지역 문화)

(3) 반문화

-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
-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성격을 가진 문화

(사례)

-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

(4) 기출 선지 정리

- 하위문화와 반문화의 총합으로 주류 문화를 설명할 수 없다.
-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모든 하위문화가 반문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주류 문화, 하위문화 모두 시대나 사회에 따라 반문화가 되기도 한다.
- 하위문화가 사회 변화에 따라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한다.
- 하위문화는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 반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이라고 해서 주류 문화의 문화 요소 전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모두 해당 문화를 누리는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 하위문화, 반문화 모두 기존 문화에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 하위문화가 강화되거나 다양화된다고 해서 기존의 주류 문화에 동화, 수렴되는 것이 아니다.
- 주류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는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다.

I 문화 변동

(1) 문화 변동의 요인

comment

1. 문화 변동의 요인은 모두 한 사회의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하는 요인이다.
2. 발명과 자극 전파는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들어 내는 요인이다.

1) 내재적 요인

1-1) 발명 :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나 사물 등을 만들어 내는 행위나 그 결과물

(사례)

- B국의 군인들은 야외 훈련 중 철제 투구를 이용하여 음식을 끓여 먹었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형태의 냄비를 만들어 조리 도구로 사용하였다.
(자신들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형태의 냄비를 만들었으므로 자극 전파에 해당하지 않음)

1-2) 발견 :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사물이나 원리 등을 찾아내는 행위나 그 결과물

2) 외재적 요인

2-1) 직접 전파 :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 과정에서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 정착하는 현상

(사례)

- 병국 사람들은 이웃 주민인 C국 이민자들이 C국의 전통적 농기구인 호미를 들여와 사용하는 것을 보고,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호미를 구매하여 정원을 가꾸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직접적인 접촉 과정에서 문화 요소가 전달되었으므로 간접 전파에 해당하지 않음)

2-2) 간접 전파 : 문화 요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 요소가 전달되어 정착되는 현상

(사례)

- 외국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춤이 인터넷을 통해 자국으로 확산된 사례

2-3) 자극 전파 : 서로 다른 문화 체계 간의 문화 요소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전파되어 새로운 문화 요소의 발명이 이루어지는 현상

(사례)

- 전쟁 중에 B국은 A국의 병조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철제 통조림을 개발한 사례

(2) 문화 접변(외재적 변동)의 결과

comment

1.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은 문화 접변의 양상 중 외래 문화의 강제적 이식 여부에 따른 구분이고, 문화 동화·병존·융합은 변동 결과에 따른 구분이다. 따라서 둘은 구분 기준 자체가 다르다.
2.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모두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도, 자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3. 강제적 문화 접변은 물리적 강제력에 기초하여 지배적 입장에 있는 사회의 문화 요소가 피지배 사회에 강제적으로 이식되어 나타나는 문화 변동이다.

1) 문화 동화

-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야기한다.
- 한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로 흡수되어 정체성을 상실하는 현상
- 외래 문화의 유입에 의해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된다.
-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사례)

-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가 이주해 온 유럽인의 문화로 대체된 사례
- 정국에서 정국 사람들이 병국 언어만 쓰게 된 사례

2) 문화 병존(공존)

-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
- 외래 문화의 유입에도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 외래 문화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사례)

- 우리나라에서 양력설과 음력설을 모두 지내는 사례
- 대중교통 요금 지불 시 현금만 이용하던 갑국에서 을국이 개발한 전자 교통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 교통 카드도 대중교통 요금 지불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 사례

3) 문화 융합

-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다.
- 외래 문화의 유입에도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된다.

(사례)

- 온돌을 사용하던 우리나라의 난방 방식과 서양식 주거 문화의 실용적 요소가 접목되어 바닥 난방식 아파트가 만들어진 사례
- A 국에서는 전통 신앙에 외래 종교가 결합된 새로운 성격의 종교가 나타났다.

|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

(1)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

1) 기능론

-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한다.
-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
- 균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는 중요도에 따른 위계 체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a point of criticism

-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우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갈등론

- 개인의 귀속적 요인(가정 배경)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이지만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 관계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한다.

(2)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1) 계급론

- 구분 기준 :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뉨.
-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다.
-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연속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로 본다.
- 같은 계층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간 연대 의식이 뚜렷하다고 본다.
-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본다.
- 사회 계층화 현상의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한다.
- 계층 간 수직 이동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

2) 계층론

- 구분 기준 : 재산 / 위신 / 권력
- 재산, 위신, 권력을 각각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뉨.
-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본다.
-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 계층을 연속적인 위계 관계로 파악한다.
- 현대 사회의 다양한 계층 분화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사회 불평등의 층위가 사회적 · 정치적 차원에서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한 사람의 지위가 계층화의 여러 차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3) 계급론과 계층론의 공통점

- 경제적 요소를 사회 불평등의 요인으로 본다.
- 경제적 요인에 의해 계층화가 발생한다고 본다.

I 빈곤 유형

(1) 절대적 빈곤 (200618)

-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
-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분류함

(2) 상대적 빈곤 (200618)

-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
-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분류함

(3)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공통적인 내용

-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4)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내용

- 개인이 주관적으로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을 판단하는 기준선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 한 국가에서 절대적 빈곤에 따른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면 전체 빈곤율이 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임금액을 기준선으로 활용한다. (220617)

I 사회 보장 제도

(1) 사회 보험 vs 공공 부조

- 사회 보험, 공공 부조 모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 보험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공공 부조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다.
- 사회 보험은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
- 사회 보험은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 공공 부조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 보험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 부조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 부조는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 사회 보험이 공공 부조보다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
- 공공 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사회 보험 vs 공공 부조 vs 사회 서비스

- 공공 부조는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는 금전적 지원을,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 부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이다.
- 사회 보험은 의무 가입이 원칙이다.
- 공공 부조는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 공공 부조는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 사회 보험은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능력에 따른 비용 부담이 원칙인 제도이다.

| 사회 변동 이론

(1) 진화론

-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본다.
-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과 동일시한다.
-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고 본다.
- 사회 변동을 문명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본다.
-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화한다고 본다.
- 서구 사회가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한다.
-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본다.
- 사회 변동을 단선적인 진보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 개발도상국의 서구식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a point of criticism

- 서구 중심의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와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한다.
-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순환론

-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 사회 변동이 언제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흥망성쇠를 거듭한 사회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사회가 퇴보할 수 있다고 본다.
- 단기적 사회 변동보다는 장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 사회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의 쇠락을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 사회는 생성과 몰락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본다.

a point of criticism

- 미래의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과거의 사회 변동만을 설명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렵다.
- 宿命론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다.

| 산업 사회 vs 정보 사회

comment

1. 산업 사회는 소품종 대량 생산, 정보 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지배적이다.
2. 산업 사회는 자본과 노동, 정보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 가치의 주요 원천이다.

No	비교 기준	비교 결과
1	직업의 동질성 정도	산업 > 정보
2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	산업 > 정보
3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	산업 < 정보
4	쌍방향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의 비중	산업 < 정보
5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제약하는 정도	산업 > 정보
6	의사 결정의 분권화 정도	산업 < 정보
7	비대면 접촉의 비중	산업 < 정보
8	정보 생산자(제공자)와 소비자(수용자) 간 구분의 명확성 정도	산업 > 정보
9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산업 > 정보
10	사회의 다원화 정도	산업 < 정보
11	정보의 확산 속도	산업 < 정보
12	지식과 정보의 부가 가치 창출 정도	산업 < 정보
13	구성원 간의 익명성 정도	산업 < 정보
14	2차 산업 비중	산업 > 정보
15	3차 산업 비중	산업 < 정보
16	관료제 조직의 비중	산업 > 정보
17	다품종 소량 생산 비중	산업 < 정보
18	소품종 대량 생산 비중	산업 > 정보
19	사회 변동의 속도	산업 < 정보
20	전자 상거래 비중	산업 < 정보

02 기출 문제

(1) 사회·문화 현상 vs 자연 현상

01 22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과 해설 12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발생으로 ㉠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 환경 친화적 소비를 유도하고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자 탄소 발자국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한다. 탄소 발자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무게 단위(kg)로 표시하거나, ㉢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감소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 나무의 수로 환산하여 표시한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02 22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과 해설 12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칠레 연안 로빈슨 크루소 섬에 서식하고 있던 염소는 에스파냐 무역선을 괴롭히던 해적의 식량원이었다. 이에 ㉠ 에스파냐 해군은 한 쌍의 개를 섬에 상륙시켰다. 그 후 개체 수가 늘어난 개가 염소를 잡아먹으면서 염소의 수가 줄어들었다. 염소의 수가 줄자 개의 개체 수도 줄어들어, ㉡ 개와 염소 간에 수의 균형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19세기 서양 지식인은 ㉢ 정부, 법률, 도덕의 개입 없이도 사회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영감을 얻었다. ㉣ 생명체는 배고프면 먹이를 찾기 마련이며 먹이의 양에 따라 개체 수가 조절된다는 점은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내는 합리적 원리였다. 이로부터 인간이 지닌 정치적 면모 대신 생물학적 면모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⑤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03 22학년도 수능 1번

[정답과 해설 13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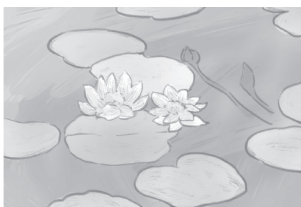
비가 오지 않는 지역으로 유명한 ㉠ 아라비아반도 남부 지역에 열대성 저기압이 상륙해 하루 만에 300mm가 넘는 비를 뿌렸다. 세계 기상 기구(WMO)는 이처럼 ㉡ 유례없는 강수량이 집중되는 현상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을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 기상 데이터와 예보 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은 ㉣ 강수 패턴과 농업이 가능한 계절의 변화 때문에 앞으로 식량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강하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⑤ ㉠, ㉢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 ㉣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04 23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과 해설 13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상파 화가인 모네(C. Monet)는 빛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무와 꽃의 색깔, ㉠ 햇빛과 물빛의 조화를 담은 작품을 창작했다. 모네의 작품에 나타난 ㉡ 색채와 표현 방식의 변화는 그가 백내장에 걸렸음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백내장에 걸리면 ㉢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져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더 진행되면 수정체가 노랗게 변한다. 이 경우 수정체에서 노란색의 보색인 남색 등은 차단되고, ㉣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노란색과 붉은색은 통과한다. 실제로 모네의 작품은 후기로 갈수록 노란색과 붉은색 계통이 주를 이루고 사물의 선과 면의 경계가 불분명한 특징이 나타난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⑤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05 23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과 해설 14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 ㉠ 일부 약제의 부작용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 약의 효능에 영향을 주는 특정 단백질이 여성에게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의 일부 전문가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 남녀 신체의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 남성의 신체를 연구의 표준으로 간주하여 임상 실험을 해 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불가치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나타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 ④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06 23학년도 수능 1번

[정답과 해설 14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미생물은 면역계 유지에 필요하다. ㉠ 미생물은 적당한 습기와 충분한 먹이가 있는 환경을 선호하여 대장에 많이 서식한다. 대장 내 미생물 중 유익균은 식이 섬유에서 영양분을 얻고, 이를 분해할 때 면역 세포를 안정시키는 물질을 만든다. 그런데 식생활에서 가공 식품과 ㉡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증가하고 유익균이 줄게 되면서 대장 내 미생물 분포가 달라졌다. 뇌와 장은 내분비계, 신경계 등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데, 미생물 분포 변화로 장내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뇌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뇌 질환자 상당수가 장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상에서 ㉢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에 탈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장 건강을 위해서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 장내 미생물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⑤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07 24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과 해설 15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체가 초고온의 에너지를 받으면 기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띠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플라스마라고 합니다. 태양에서는 ㉠ 플라스마 상태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핵융합 발전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효율의 에너지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인공 태양을 구현하려고 노력한 결과, 지난 ○○월 ○○일 ㉡ 초고온의 플라스마 상태를 최장 시간 유지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기체가 일정한 조건에 이르면 플라스마로 변화하는데, 플라스마가 실험로 진공 용기에 닿는 순간 핵융합 반응이 끝납니다. 핵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플라스마를 실험로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연구자들은 ㉣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실험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NEWS

한국산 '핵융합' 인공 태양, 실험 성공

-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08 24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과 해설 15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람사르 데이'는 ㉠ 습지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참가자들은 ㉡ 습지에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옷을 입고 행사에 참여한다. 습지 보존이 중요한 이유는 ㉢ 습지가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플랑크톤과 유기 물질이 풍부한 ㉣ 습지는 각종 오염 물질을 정화한다. 그뿐만 아니라 ㉤ 습지는 기후 위기의 요인 중 하나인 탄소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09 24학년도 수능 1번

[정답과 해설 16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 강물 속 용존 산소 감소가 수생 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물속 용존 산소는 물속 생물의 호흡 과정에서 소비된다. 그런데 ㉡ 지구 온난화에 의해 수온이 상승하면 물속 생물의 호흡량이 증가하여 ㉢ 용존 산소가 더 빠르게 고갈된다. 보고서에서는 ㉣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이 실패할 경우 얕은 강에서 특정 어종이 사라질 정도로 수(水) 생태계의 ㉤ 생물 다양성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른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10 25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과 해설 16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과에는 폴리페놀 화합물과 이를 산화시키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 사과의 껍질을 깎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산화가 일어나 퀴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퀴논은 반응성이 높아 퀴논 간에 서로 화학 작용을 일으켜 ㉢ 갈색을 띠는 멜라닌 성분을 생성한다. 사과의 갈변을 막기 위해 ㉣ 깎은 사과 표면을 설탕 용액으로 코팅하여 산소와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른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불가치적이다.
- ④ ㉣과 같은 현상에 비해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⑤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11 25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과 해설 17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 오일이 개발되었다. 전자 현미경으로 모기를 확대해보면 다리에 미세한 털이 있다. ㉡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것은 이 미세한 털이 물을 튕겨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 오일은 그러한 행동을 못 하게 하여 모기가 사람의 ㉢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사람에 비유하면 눈에 발이 빠지는 것 같아 무서워서 달아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오일은 ㉣ 뎅기열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④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⑤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12 25학년도 수능 1번

[정답과 해설 17page]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문
2024년 □월 □일

뜨거워진 한반도, 과일 재배 지도가 바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 나주 배, 대구 사과와 같이 지역 특산물로 생산되고 있는 과일들이 더 이상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기후 변화로 ㉡ 연평균 기온이 올라갈수록 특정 과일이 자랄 수 있는 지역이 북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표적인 사과 재배지가 경북 지역에서 강원 지역으로 바뀌고 2090년경에는 ㉣ 국내에서 고품질의 사과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폭염, 한파 등 ㉤ 기상 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뜨겁게 달아오른 지구가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과 같은 현상은 불가치적이다.
- ⑤ ㉣과 같은 현상에 비해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이 강하다.

(2)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01 21학년도 6월 평가원 8번

[정답과 해설 18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판소리 흥부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행위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말씀해 보세요.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보다는 신세 한탄만 하며 형에게 의존하려는 흥부와 달리 놀부가 부자가 된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아껴 쓴 행동에 대한 적당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 규범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놀부가 장남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아우인 흥부가 받을 재산까지 차지한 것 아닙니까? 사회적 희소 자원을 모두 형에게 빼앗긴 흥부가 개인적 노력으로 빈곤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흥부가 형수로부터 밥풀이 묻은 주걱으로 뺨을 맞자 고맙다고 말하며 다른 뺨을 내민 장면이 주목합니다. 형수는 흥부를 내쫓기 위해 주걱을 휘둘렀지만 흥부는 배고픈 사동생에게 밥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을의 관점은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③ 병의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④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 ⑤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02 21학년도 9월 평가원 6번

[정답과 해설 18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병의 관점은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최근 들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공정한 분배 체계의 심화로 희소 자원이 기득권층에 집중되면서 결혼 생활에 요구되는 기본 여건을 마련할 수 없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 수반되는 출산, 육아, 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결혼이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 체계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② 을의 관점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한다.
- ③ 병의 관점은 결혼 제도가 사회 구성원을 충원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④ 갑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 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결혼 제도와 다른 사회 제도 간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03 21학년도 수능 14번

[정답과 해설 19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병의 관점은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3점]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을 추구하는 현상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워라밸은 개인에게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개인의 업무 능력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득권층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현상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고용주를 비롯해 대다수 직원들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일상생활을 중시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직원들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워라밸 문화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즐기며 자신을 재충전하여 사회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② 을의 관점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병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④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 ⑤ 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04 22학년도 6월 평가원 18번

[정답과 해설 19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가)~(다)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질병은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에 의해 사회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예컨대 19세기 유럽에서는 폐결핵에 걸린 지식인과 예술인의 마른 자태를 열정과 낭만의 징표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 (나) 질병은 사회 체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규정된다. 따라서 질병 치료는 일종의 사회 통제라고 볼 수 있다.
- (다)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질병으로 나타난다. 질병에 걸릴 위험은 사회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① (가)의 관점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나)의 관점은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 ④ (나)의 관점은 (다)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연적 속성으로 본다.
- ⑤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발생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으로는 (가)와 (다)의 관점을 구분할 수 없다.

05 22학년도 9월 평가원 2번

[정답과 해설 20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병의 관점은 각각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3점]



혼밥족*이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전통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 소속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의례였는데, 이러한 식사 규범이 약화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외톨이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혼자 밥을 먹는 행위를 가족이나 집단의 구속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세련된 도시인의 생활 방식으로 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결국 혼밥은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 혼밥족: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

- ① 갑의 관점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병의 관점은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며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 ⑤ 을, 병의 관점은 모두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06 22학년도 수능 3번

[정답과 해설 20page]

표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가)	예	아니요	아니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가?	아니요	예	예

— <보 기> —

- ㄱ. A는 B와 달리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 ㄴ. B는 C와 달리 사회 각 부분의 통합과 균형을 강조한다.
- ㄷ. C는 A와 달리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
- ㄹ. (가)에는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07 23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정답과 해설 21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가)~(다)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가) 환경 문제는 사람들이 환경 오염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면서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오늘날 많은 환경 운동가, 학자, 언론인, 시민들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문제 의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그린(Green)', '에코(Eco)', '재생'과 같은 표현을 친환경의 대명사처럼 인식하면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서로 독려하고 있다.
- (나) 환경 문제는 산업화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병리 현상이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면,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가 증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정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결국 전체 사회는 다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한다.
- (다) 환경 문제는 자본가 계급이 자신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자본가 계급이 환경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며 자신의 이윤 추구에만 몰두한 결과가 환경 오염으로 나타난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노동자 계급의 몫이다. 이윤 추구에서 배제된 노동자 계급은 환경 문제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 ① (가)의 관점은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② (나)의 관점은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과정을 중시한다.
 ③ (다)의 관점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대립과 투쟁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④ (나)의 관점은 (다)의 관점과 달리 사회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다)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08 23학년도 9월 평가원 14번

[정답과 해설 21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자

기후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갑


을

가뭄이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의례였습니다.


갑


을

의례의 절차와 제물은 비슷하지만,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원들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여 행동하였습니다.


갑


을

기후제와 같은 의례는 피지배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층의 통치 수단에 불과합니다.


병

- ①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갑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③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④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⑤ 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09 23학년도 수능 3번

[정답과 해설 22page]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구 증가는 사람들 간 접촉과 상호 작용을 증가시킨다. 이때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치열한 경쟁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생존 가능한 자리를 찾으려는 개인들의 노력을 낳고 이는 업무 전문화로 이어진다. 전문화는 개인들로 하여금 상호 의존을 하도록 압박하고 상호 의무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강화한다. 전문화로 인한 업무 분화는 무한 경쟁이 파괴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 ① 사회의 안정보다는 변동을 중시한다.
- ②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 ③ 사회에는 어느 시점이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 ④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 ⑤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0 24학년도 6월 평가원 3번

[정답과 해설 22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은 재화나 권위 또는 권력과 같은 희소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투쟁한다. 두 집단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갈등은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B : 사회 체계는 기본적으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적대, 긴장, 모순, 투쟁과 같은 갈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갈등은 균형을 유지하려는 사회 체계의 속성으로 인하여 머지않아 조화롭게 조정된다.

- ① A는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 ② B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 ③ A는 B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B는 A와 달리 질서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 ⑤ A와 B는 모두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1 24학년도 수능 4번

[정답과 해설 23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3점]

교사 : A, B, C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관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 : A는 사회가 생물 유기체처럼 균형을 유지한다고 전제합니다. 조화와 균형은 정상적 상태로, 부조화와 불균형은 병리적 상태로 봅니다.

을 : B는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또한 B는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합니다.

교사 : 갑은 옳게, 을은 틀리게 설명했습니다. 을의 설명에는 정작 B의 내용은 없고, A와 C의 내용만 있네요.

- ① A는 B와 달리 개인의 상황 정의와 의미 해석을 강조한다.
- ② B는 C와 달리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 ③ C는 A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 ⑤ ‘사회 각 제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하는가?’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12 25학년도 6월 평가원 2번

[정답과 해설 23page]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3점]

개별 구성원의 이익과 집합체의 이익 간 불일치는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개인들의 이익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 사회 내 구조화된 관계에 의해 규정된 역할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 과정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합체는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한다.

— <보 기> —

- ㄱ.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 ㄴ. 질서와 안정에 기반한 점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 ㄷ.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13 25학년도 9월 평가원 6번

[정답과 해설 24page]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계층적 지위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지만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을 : 아닙니다. 계층적 지위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결과이며,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병 : 계층적 지위는 개인의 출신이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말투와 옷차림에 신경 쓰면서 자신의 계층을 인식하는 것처럼 계층적 지위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 ① 갑의 관점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 ③ 병의 관점은 사회 현상을 갈등과 대립의 측면에서만 파악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갑, 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본다.
- ⑤ 을, 병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14 25학년도 수능 2번

[정답과 해설 24page]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3점]

사회 체계 안에서 인간의 상호 작용이 작동하는 이유는 행위자들에게 할당되는, 분화된 역할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은 역할 구조 속에서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개인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공유된 기대에 부응하여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을 함에 따라 사회라는 완전체가 형성된다.

— <보 기> —

- ㄱ.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 ㄴ. 개인 행위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 ㄷ.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ㄹ.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Part
02

문제 풀이법 파트



Chapter 01 구분 유형

구분 유형의 key point는 **소거법**이다.

구분 유형은 3~4가지의 것들을 2~3 문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구분 유형 문제를 푸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구분할 수 없다.’ 문장부터 먼저 보는 것이다.**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A와 B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이 **‘구분할 수 없다.’가 포함된 문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하나를 소거해야**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다. **‘구분할 수 없다.’가 포함된 문장이 아닌 다른 문장부터 먼저 보게 되면 풀이 과정이 복잡해진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19년 4월 교육청 13번 변형

다음 A ~C의 일탈 이론을 각각 구해보자. (단, A ~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A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19년 4월 교육청 13번 변형 해설 / 정답 A: 아노미 이론, B: 차별 교제 이론, C: 낙인 이론

풀이 속도 비교를 위해 ‘구분할 수 있다.’가 있는 첫 번째 문장부터 차례대로 보는 풀이와 ‘구분할 수 없다.’가 있는 문장부터 보는 풀이의 두 가지 풀이를 보여주도록 하겠다.

1. ‘구분할 수 있다.’가 있는 첫 번째 문장부터 차례대로 보는 풀이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자.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일탈 이론은 아노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이고, ‘아니요’라고 답할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이 유일하다. 해당 문장을 통해 A와 C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낙인 이론은 A나 C 중 하나이고, B는 아노미 이론이나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두 번째 문장을 보자.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이고, ‘아니요’라고 답할 일탈 이론은 아노미 이론이 유일하다. 해당 문장을 통해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B와 C는 각각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고 A는 아노미 이론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 도출된 결론과 두 번째 문장에서 도출된 결론을 결합하면 A는 아노미 이론이므로 B는 아노미 이론이 아닌 차별 교제 이론이 되고, 나머지 C는 낙인 이론이 된다.

2. ‘구분할 수 없다.’가 있는 문장부터 보는 풀이

‘구분할 수 없다.’가 있는 두 번째 문장부터 먼저 보자.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이고, ‘아니요’라고 답할 일탈 이론은 아노미 이론이 유일하다. 해당 문장을 통해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B와 C는 각각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고 A는 아노미 이론이다.

다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 있는 첫 번째 문장을 보자.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A인 아노미 이론은 ‘예’라고 답하므로 해당 문장으로 A와 C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C가 해당 문장에 ‘아니요’라고 답해야 한다. 따라서 C는 낙인 이론, B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두 개의 문장으로 세 가지를 분류하는 것은 두 풀이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세 개 이상의 문장으로 네 가지 이상을 분류하는 것은 저자의 풀이 방식이 훨씬 수월하다.

‘구분할 수 없다.’가 있는 문장부터 보지 않고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가 있는 문장을 보고 난 뒤, 다시 처음에 봤던 문장을 보아야 한다.

자료는 문화 접변 양상 A~C를 질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질문 (가)~(다)에 대해 각각 ‘예’와 ‘아니요’ 중 같은 답을 할 수 있는 유형들을 한 묶음으로 처리한다.) [3점]

A B C 질문: _____ (가) _____	A B C 질문: _____ (나) _____	A B C 질문: _____ (다) _____
---	---	--

문화 접변 양상 A~C는 각각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중 하나이다. 이 중 A의 사례로는 ‘서양의 의복 문화가 접목된 현대의 개량 한복’, B의 사례로는 ‘우리나라에 전통 종교와 외래 종교가 각각 자리잡은 것’을 들 수 있다.

— <보 기> —

- ㄱ. (가)에는 “제3의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가?”가 적절하다.
- ㄴ. (나)에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가?”가 적절하다.
- ㄷ. (다)에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한가?”가 적절하다.
- ㄹ. C의 사례로 ‘케이팝(K-POP)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을 들 수 있다.



18년 7월 교육청 9번 해설 / 정답 : ㄱ, ㄴ

- 해당 문제는 구분 유형에 속한 다른 문제들과 형식은 다르지만, 풀이 방법에 유사한 점이 있어 수록했다.
'같은 답을 할 수 있는 유형들을 한 묶음으로 처리한다.'라는 단서를 통해 문화 접변 양상들을 구분하여 접근한다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의 의복 문화가 접목된 현대의 개량 한복은 문화 융합의 사례이므로 A는 문화 융합이다.
우리나라에 전통 종교와 외래 종교가 각각 자리 잡은 것은 문화 병존의 사례이므로 B는 문화 병존이다. 따라서 C는 문화 동화이다.

- (가)에는 문화 병존(B), 문화 동화(C)를 문화 융합(A)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나)에는 문화 융합(A), 문화 병존(B)을 문화 동화(C)와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다)에는 문화 융합(A), 문화 병존(B), 문화 동화(C) 모두 같은 대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ㄱ. 문화 접변 양상 중 제3의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 것은 문화 융합(A)뿐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ㄴ. 문화 접변 양상 중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은 문화 동화(C)뿐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ㄷ. 문화 접변 양상 중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한 것은 문화 융합(A)과 문화 병존(B)뿐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ㄹ. 케이팝(K-POP)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은 문화 동화(C)의 사례가 아니다.

Chapter 01 기출 문제

01 19학년도 수능 4번

[정답과 해설 156page]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3점]

- ‘개인의 행동은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 규범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 ‘개인의 행동이 개인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강제력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으로는 A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 ① A는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본다.
- ② B는 사회의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한다.
- ③ C는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 ④ A, B는 C와 달리 사회 제도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 ⑤ A는 B, C와 달리 개인의 행동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02 21학년도 9월 평가원 13번

[정답과 해설 157page]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 중 하나이다.)

- ‘공통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따라 B, D는 A, C와 구분된다.
-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하였는가?’라는 질문으로는 A, C, D를 구분할 수 없다.
-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추었는가?’라는 질문에 따라 A, D는 B, C와 구분된다.

- ① C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② A는 2차 집단, B는 1차 집단이다.
- ③ D는 A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 ④ D는 B, C와 달리 구성원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다.
- ⑤ A, D는 이익 사회, B, C는 공동 사회이다.

03 19년 3월 교육청 7번

[정답과 해설 158page]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C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3점]

-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가?’는 A와 B를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다.
-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큰가?’는 A와 C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다.
- (가) 는 B와 C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다.

— <보 기> —

- ㄱ. A에 비해 C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
- ㄴ. B에 비해 A는 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 ㄷ. B와 달리 C는 문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태도이다.
- ㄹ. (가)에 ‘맹목적으로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04 24학년도 9월 평가원 10번

[정답과 해설 159page]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는 자료 수집 방법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가) 에 대한 ‘예’, ‘아니요’의 응답을 통해 A와 B를 구분할 수 있지만,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단, A~C는 각각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 ① A가 질문지법이라면, (가)에는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합니까?’가 들어갈 수 없다.
- ② A가 면접법이라면, (가)에는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C가 참여 관찰법이라면, (가)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입니까?’가 들어갈 수 없다.
- ④ C가 질문지법이라면, (가)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입니까?’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가)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까?’가 들어간다면, B는 주로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 활용된다.

Chapter 02 개방형 문제 유형

개방형 문제란 문제에 주어진 단서로는 표나 그림에 있는 관점, 이론 등을 모두 적을 수 없는 문제 유형을 의미하며, 이는 선지의 조건에 따라 표나 그림에 있는 관점, 이론 등이 정해지게 된다.

I 개방형 문제 풀 때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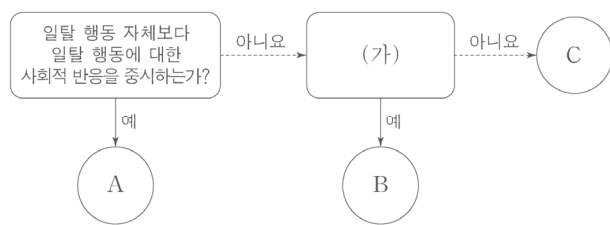
1. 타임어택이 심한 사회·문화 과목의 특성상 이미 들어갈 이론/관점이 정해진 것은 종이에 적어두고, 선지의 조건에 따라 답이 갈리는 것은 **눈으로 풀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하자.** (일명 ‘눈풀이’)

- 부분 확정형의 경우

〈예시〉 20학년도 6월 평가원 7번 변형

그림은 일탈 이론 A~C를 구분한 것이다.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 일탈 행동 자체보다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는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예’라고 답한 A는 낙인 이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다. (가)에 들어갈 질문에 따라 B와 C에 들어갈 이론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선지는 ‘눈풀이’로 처리하도록 하자.

2. 상황 판단을 꼼꼼히 해야 한다. 질문에 ‘예’라고 답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판단하도록 하자. (주로 표 유형의 경우)

〈예시〉 17학년도 9월 평가원 11번 변형

표는 일탈 이론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표를 보고 다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이론 \ 질문	(가)	(나)	(다)
A	예	아니요	아니요
B	아니요	아니요	예
C	아니요	예	아니요

· A가 아노미 이론, B가 차별 교제 이론이라면, “타인들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가?”는 (다)에 적절하다. (×)

⇒ A가 아노미 이론, B가 차별 교제 이론이라면, C는 낙인 이론이다. (다)에는 차별 교제 이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 둘 다 타인들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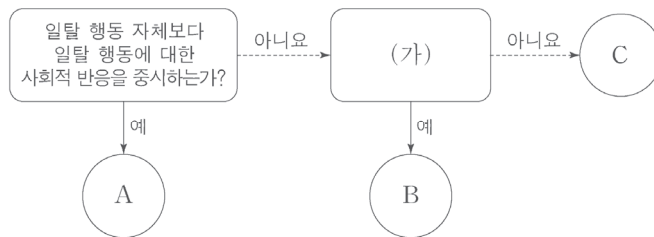
⇒ 해당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아노미 이론이 해당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고, 차별 교제 이론이 '예'라고 답한다고 해도 낙인 이론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개방형 선지는 3가지의 논리적 과정에 따라 분석하도록 하자. (눈풀이 가능하도록 연습하기)

3가지의 논리적 과정은 주로 ① 조건에 나오는 질문이나 문장에 해당하는 관점/이론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 ② 뒤에 나오는 질문이나 문장에 어떤 관점/이론이 들어가야 하는지 파악하기 → ③ 전체적인 상황 파악하기(선지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시〉 20학년도 6월 평가원 7번 변형

그림은 일탈 이론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 ① B가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으로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면, (가)에는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가)가 '일탈 행동에 우호적인 집단과의 교류 차단을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는가?'라면, C는 일탈자로서의 자아 정체성 형성이 반복적인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 ③ (가)가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탈 행동을 야기한다고 보는가?'라면, A, C 모두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행동의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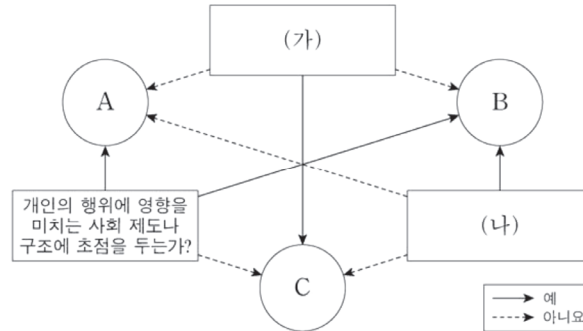
20학년도 6월 평가원 7번 변형 해설 / 정답 : ③

일탈 행동 자체보다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시하는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예'라고 답한 A는 낙인 이론이다. → 표시해 두기

〈선지 분석〉

- ①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으로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일탈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 B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라면 (가)에는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예', 차별 교제 이론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 모두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일탈 행동에 우호적인 집단과의 교류 차단을 일탈 행동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는 일탈 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이다. →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해당 질문에 '예'라고 답할 차별 교제 이론은 B이고, '아니요'라고 답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C이다. → 일탈자로서의 자아 정체성 형성이 반복적인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이므로 틀린 선지이다.
- ③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탈 행동을 야기한다고 보는 일탈 이론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간다면, 해당 질문에 '예'라고 답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B이고, '아니요'라고 답할 차별 교제 이론은 C이다. →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 모두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행동의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므로 옳은 선지이다.

그림은 질문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3점]



- ① (가)에는 ‘인간을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 ② A가 갈등론이라면, (가)에는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B가 기능론이라면, (나)에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 관계에 주목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C는 A, B와 달리 행위자의 능동적, 자율적 측면을 간과한다.
- ⑤ (나)가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가?’라면, A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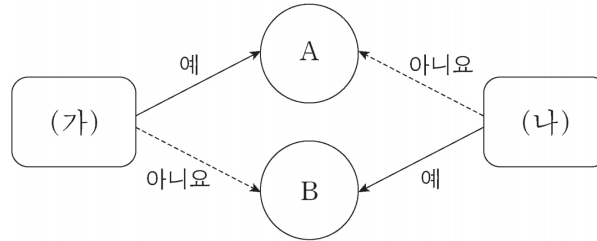
20학년도 수능 4번 해설 / 정답 : ⑤

- (1)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두는가?'라는 질문에 유일하게 '아니요'라고 답할 C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2) (가)에는 C에 해당하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고, (나)에는 B에 해당하는 이론이 '예', A에 해당하는 이론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인간을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 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② A가 어떤 관점이든 상관없이, (가)에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③ B가 기능론이라면, (나)에는 기능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 대립 관계에 주목하는 관점은 갈등론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C)은 행위자의 능동적, 자율적 측면을 강조한다.
- ⑤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나)에 들어가면 B는 갈등론이고, A는 기능론이다.
기능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림은 사회 집단 또는 사회 조직 A, B를 질문 (가), (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가)가 '구성원의 선택적 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인가?'라면, A에는 가족이, B에는 종친회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나)가 '형식적·수단적 인간 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가?'라면, A에는 회사가, B에는 또래 집단이 들어갈 수 있다.
- ③ A가 시민 단체라면, (가)에는 '구성원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집단인가?', (나)에는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B가 회사 내 동호회라면, (가)에는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인가?', (나)에는 '공식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조직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A가 기업의 노동 조합이고 B가 대학 총동창회라면, (가)에는 '주로 공식적 규범을 통해 구성원을 통제하는가?', (나)에는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전인격적 관계에 기초한 집단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20학년도 6월 평가원 16번 해설 / 정답 : ③

(가)에는 사회 조직 A가 ‘예’, B가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사회 조직 B가 ‘예’, A가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① 구성원의 선택적 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은 이익 사회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A에는 이익 사회, B에는 공동 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가족은 공동 사회, 종친회는 이익 사회의 사례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A에는 가족이, B에는 종친회가 들어갈 수 없다.
- ② 형식적·수단적 인간 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은 2차 집단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나)에 들어가면 A에는 1차 집단, B에는 2차 집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회사는 2차 집단, 또래 집단은 1차 집단의 사례이므로 해당 질문이 (나)에 들어가면 A에는 회사, B에는 또래 집단이 들어갈 수 없다.
- ③ 시민 단체는 구성원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된 공식 조직이므로, A가 시민 단체라면 첫 번째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시민 단체는 구성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공동 사회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선택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이익 사회이므로, A가 시민 단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B가 회사 내 동호회라면, (가)에는 회사 내 동호회가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회사 내 동호회가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회사 내 동호회는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발적 결사체이므로 B가 회사 내 동호회라면, 첫 번째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회사 내 동호회는 공식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이므로 B가 회사 내 동호회라면, 두 번째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⑤ A가 기업의 노동 조합이고 B가 대학 총동창회라면, (가)에는 기업의 노동 조합이 ‘예’, 대학 총동창회가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기업의 노동 조합이 ‘아니요’, 대학 총동창회가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기업의 노동 조합과 대학 총동창회는 모두 주로 공식적 규범을 통해 구성원을 통제하는 공식 조직이므로 A가 기업의 노동 조합이고 B가 대학 총동창회라면 첫 번째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기업의 노동 조합과 대학 총동창회 모두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전인격적 관계에 기초한 1차 집단은 아니므로 두 번째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 A~D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3점]

구분		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는가?	
		예	아니요
(가)	예	A	B
	아니요	C	D

- ① (가)는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인가?’가 적절하다.
- ② (가)가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가?’라면 A는 질문지법, D는 참여 관찰법이다.
- ③ (가)가 ‘자료 수집 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 요건인가?’라면 B는 면접법, C는 질문지법이다.
- ④ A가 질문지법이라면 (가)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주로 사용되는가?’가 적절하다.
- ⑤ B가 참여 관찰법이라면 (가)는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가?’가 적절하다.



18학년도 수능 5번 해설 / 정답 : ②

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과 질문지법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예’라고 답한 A와 C는 각각 실험법과 질문지법 중 하나이고, ‘아니요’라고 답한 B와 D는 각각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선지 분석〉

- ①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은 실험법뿐이므로 실험법이 A라고 하더라도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 모두 해당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해야 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 방법은 면접법과 질문지법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A와 D 중 해당 질문에 ‘예’라고 답한 A는 질문지법, ‘아니요’라고 답한 D는 참여 관찰법이다.
- ③ 자료 수집 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과 질문지법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와 C 중 해당 질문에 ‘예’라고 답한 B는 면접법, ‘아니요’라고 답한 C는 실험법이다.
- ④ A가 질문지법이라면, (가)에는 질문지법이 ‘예’, 실험법이 ‘아니요’라고 답하고,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 중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주로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뿐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B가 참여 관찰법이라면, (가)에는 참여 관찰법이 ‘예’, 면접법이 ‘아니요’라고 답하고, 실험법과 질문지법 중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연구자가 현상이 실제로 발생한 현지에 가서 연구해야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법뿐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표는 일탈 이론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이론 \ 질문	(가)	(나)	(다)
A	예	아니요	아니요
B	아니요	아니요	예
C	아니요	예	아니요

— <보 기> —

- ㄱ. A가 아노미 이론, B가 차별 교제 이론이라면, “타인들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가?”는 (다)에 적절하다.
- ㄴ. B가 낙인 이론, C가 아노미 이론이라면,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가?”는 (가)에 적절하다.
- ㄷ. (가)가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가?”라면, “일탈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요인을 강조하는가?”는 (나)에 적절하다.
- ㄹ. (가)가 “일탈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가?”이고, (다)가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기회 제공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가?”라면, C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17학년도 9월 평가원 11번 해설 / 정답 : ㄴ, ㄹ

(가)에는 A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C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다)에는 B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ㄱ. A가 아노미 이론, B가 차별 교제 이론이라면 C는 낙인 이론이다. 타인들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 발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일탈 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이므로 해당 질문은 B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 (다)에 들어갈 수 없다.

ㄴ. B가 낙인 이론, C가 아노미 이론이라면 A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 일탈 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뿐이므로 해당 질문은 A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ㄷ.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 일탈 이론은 아노미 이론이므로 첫 번째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A는 아노미 이론이다. 아노미 이론은 일탈의 원인으로 구조적인 요인을 강조하므로 두 번째 질문은 A가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 (나)에 들어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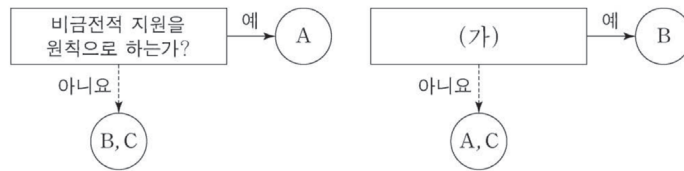
ㄹ. 일탈 행동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일탈 이론은 낙인 이론이므로 첫 번째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A는 낙인 이론이다. 문화적 목표에 도달할 기회 제공을 일탈에 대한 대책으로 보는 일탈 이론은 아노미 이론이므로 두 번째 질문이 (다)에 들어가면 B는 아노미 이론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C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Chapter 02 기출 문제

01 19학년도 수능 15번

[정답과 해설 160page]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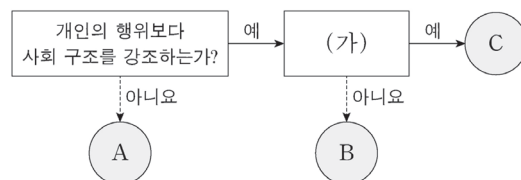


- ① A는 B, C와 달리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 ② B보다 C가 대상자의 범위가 넓다면, B는 A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 ③ C가 사회 보험이면, (가)에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적절하다.
- ④ (가)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가?'라면, A와 C의 대상자는 중복될 수 없다.
- ⑤ (가)가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가?'라면, C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02 20학년도 9월 평가원 12번

[정답과 해설 161page]

그림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이다.) [3점]



- ① A는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 ② (가)가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합의를 중요시하는가?'라면, B는 C와 달리 인간을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본다.
- ③ (가)가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설명하는가?'라면, C는 B와 달리 집단 간의 대립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본다.
- ④ B가 사회 제도를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가)에는 '사회를 유기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C가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 관점이라면, (가)에는 '사회적 갈등을 필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03 23학년도 6월 평가원 10번

[정답과 해설 162page]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중 하나임.) [3점]

A, B, C는 문화 접변의 결과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가 이주해 온 유럽인의 문화로 대체된 것'은 A의 사례이고, B는 C와 달리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표의 질문을 통해 A, B, C를 비교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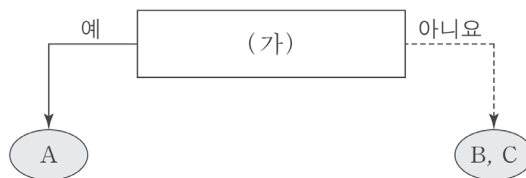
질문 \ 문화 접변 결과	A	B	C
(가)	예	아니요	예
(나)	㉠	㉡	예
(다)	아니요	㉢	㉣

- ① C의 사례로는 '우리나라에서 양력설과 음력설을 모두 지내는 것'을 들 수 있다.
- ② A는 B, C와 달리 강제적 문화 접변에 의해 나타난다.
- ③ (가)에는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야기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나)에 '외재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문화 변동인가?'가 들어간다면, ㉠은 '예', ㉡은 '아니요'이다.
- ⑤ (다)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는가?'가 들어간다면, ㉢은 '아니요', ㉣은 '예'이다.

04 18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정답과 해설 162page]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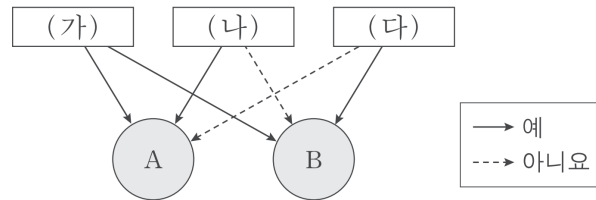


- ① A가 공공 부조이면, (가)에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적절하다.
- ② A가 사회 보험이면, (가)에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적절하다.
- ③ A가 사회 서비스이면, (가)에는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가?'가 적절하다.
- ④ (가)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인가?'이면, 기초 연금과 고용 보험은 각각 B, C 중 하나에 속한다.
- ⑤ (가)가 '상담, 재활,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가?'이면, B와 C의 대상자는 상호 배타적이다.

05 18학년도 9월 평가원 16번

[정답과 해설 163page]

그림은 질문 (가)~(다)에 따라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 B는 각각 계급 이론, 계층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 <보 기> —

- ㄱ. (가)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ㄴ. A가 계층 이론이라면, (나)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연속적인 위계화로 파악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ㄷ. A가 계급 이론이라면, (다)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발생 원인을 다원론적 관점으로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B가 계층 이론이라면, (나)에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06 15학년도 수능 12번

[정답과 해설 163page]

표는 질문 (가)~(다)를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두 이론 A, B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계급론과 계층론 중 하나이다.) [3점]

이론 \ 질문	(가)	(나)	(다)
A	아니요	예	아니요
B	예	아니요	아니요

- ① A가 계층론이면 (가)는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가 적절하다.
- ② A가 계층론이면 (나)는 “계층을 일원론적 관점에서 구분하는가?”가 적절하다.
- ③ (나)가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집단 구성원이 갖는 강한 귀속 의식을 중시하는가?”이면, B는 계층론이다.
- ④ (다)는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가?”가 적절하다.
- ⑤ (가)가 “사회 불평등을 연속적인 서열로 파악하는가?”이면, (나)는 “사회 이동의 개방성이 크다고 보는가?”가 적절하다.

07 17학년도 6월 평가원 5번

[정답과 해설 164page]

표는 질문 (가)~(다)를 활용하여 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 A,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관점 \ 질문	(가)	(나)	(다)
A	아니요	예	예
B	예	아니요	예

- ① A가 진화론이면 (가)에는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을 받는가?”가 적절하다.
- ② B가 순환론이면 (다)에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하는가?”가 적절하다.
- ③ (나)가 “사회 변동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가?”이면, B는 순환론이다.
- ④ (다)에는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가 적절하다.
- ⑤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는가?”이면, (나)에는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는가?”가 적절하다.

08 19학년도 6월 평가원 6번

[정답과 해설 164page]

표는 자료 수집 방법 A~C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C는 각각 실험법, 질문지법, 면접법 중 하나이다.) [3점]

자료 수집 방법	A	B	C
일반적인 특징	(가)		(나)
	(다)	(라)	

— <보 기> —

- ㄱ. A가 질문지법이고, (가)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하다.’라면, (나)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가 적절하다.
- ㄴ. C가 면접법이고, (다)가 ‘인위적으로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기에 용이하다.’라면, (라)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가 적절하다.
- ㄷ. (가)가 ‘연구 대상자와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다.’라면, (나)는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가 적절하다.
- ㄹ. (나)가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라면, (가)는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 용이하다.’가 적절하다.

09 19학년도 9월 평가원 3번

[정답과 해설 165page]

표는 질문 (가)~(다)를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이다.)

[3점]

구분	A	B	C
(가)	예	아니요	예
(나)	아니요	㉠	㉡
(다)	아니요	예	아니요

* 단, 질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로만 답할 수 있음.

— <보 기> —

- ㄱ. (가)에는 '인간을 능동적인 주체로 전제하는가?'가 적절하다.
 ㄴ. (나)가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상황 정의에 기초한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가?'라면, ㉠과 ㉡의 답변은 서로 다르다.
 ㄷ. (다)에는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체계를 중시하는가?'가 적절하다.
 ㄹ. A, B가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 중 하나라면, (다)에는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가?'가 적절하다.

10 19학년도 수능 16번

[정답과 해설 165page]

표는 자발적 결사체 A~C를 질문 (가)~(다)의 응답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3점]

질문 \ 응답	예	아니요
(가)	B	A, C
(나)	A, B, C	—
(다)	A, C	B

- ① (가)에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② (나)에는 '본질 의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③ (다)에는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결성한 집단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④ A와 C가 각각 시민 단체와 친목 집단 중 하나라면, (가)에는 '사회 다원화에 기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⑤ B가 친목 집단이라면, (다)에는 '과업 지향적인 집단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11 20학년도 수능 14번

[정답과 해설 166page]

표는 문화 이해의 태도 A~C를 질문 (가)~(다)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A~C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3점]

태도 \ 질문	(가)	(나)	(다)
A	예	아니요	예
B	예	아니요	아니요
C	아니요	예	아니요

<보 기>

- ㄱ. A가 자문화 중심주의라면, (가)에는 ‘국수주의적 태도로 인해 문화 다양성을 거부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ㄴ. B가 자문화 중심주의, C가 문화 사대주의라면, (다)에는 ‘타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ㄷ. (가)가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면, (나)에는 ‘개별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ㄹ. (나)가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이고, (다)가 ‘자기 문화의 가치만을 중시하는가?’라면, B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중 하나이다.)

연구 사례		자료 수집 방법
토론 수업 방식에 대한 고등학생의 선호도를 연구하기 위해 □□ 지역 고등학생 500명에게 구조화된 문항을 제시하고 응답을 구하였다.		A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그 효과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20~30대 신혼부부 10쌍을 선정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기록하였다.		B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유아들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 어린이집에 6개월간 머무르며 유아들의 행동과 대화 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기록하였다.		C

구분	자료 수집 방법		
	A	B	C
(가)	예	아니요	아니요
(나)	아니요	아니요	예
(다)	예	예	아니요

- ① C는 A, B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 ② B, C는 A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가)에는 '경험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나)에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다)에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Part
03

표 파트



01 비율과 변화율

- ① 비 - 각각의 양을 기호 :로 나타낸 것 (2 : 1) $\Rightarrow$ 1이 기준량, 2가 비교하는 양
- ② 비율 - 기호 :를 사용하지 않고,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분수로 나타내어 비교하는 것
 $\Rightarrow \frac{\text{비교하는 양}}{\text{기준량}}, A \text{ 대비 } B \Rightarrow \frac{B}{A}$
- ③ 백분율 - 기준량이 100인 비율 $\Rightarrow \text{비율} \times 100(\%)$
- ④ 변화율 - 두 변수가 변화하는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

(1) 기본적인 비율 비교하기

분모가 같다고 가정할 때, 분자가 큰 곳의 비율이 더 높다.

ex $\frac{2}{7} < \frac{5}{7} \quad \frac{4}{9} > \frac{2}{9}$

분자가 같다고 가정할 때, 분모가 큰 곳의 비율이 더 낮다.

ex $\frac{3}{5} > \frac{3}{8} \quad \frac{2}{5} < \frac{2}{3}$

(2) 변화율 익히기

변화율은 수 자체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변화율 구하는 공식 : $\frac{\text{나중 값} - \text{초기 값}}{\text{초기 값}} \times 100$

18년 3월 교육청 13번 변형

표를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A 지역의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빈곤 가구	100	110	120
비빈곤 가구	500	530	550

- ① 2015년 대비 2016년의 월평균 소득 증가액은 빈곤 가구보다 비빈곤 가구가 크다. (○ / ×)
② 2015년 대비 2016년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빈곤 가구보다 비빈곤 가구가 크다. (○ / ×)



18년 3월 교육청 13번 변형 해설 / 정답 : ○, ×

① 2015년 대비 2016년의 월평균 소득 증가액은 빈곤 가구보다 비빈곤 가구가 크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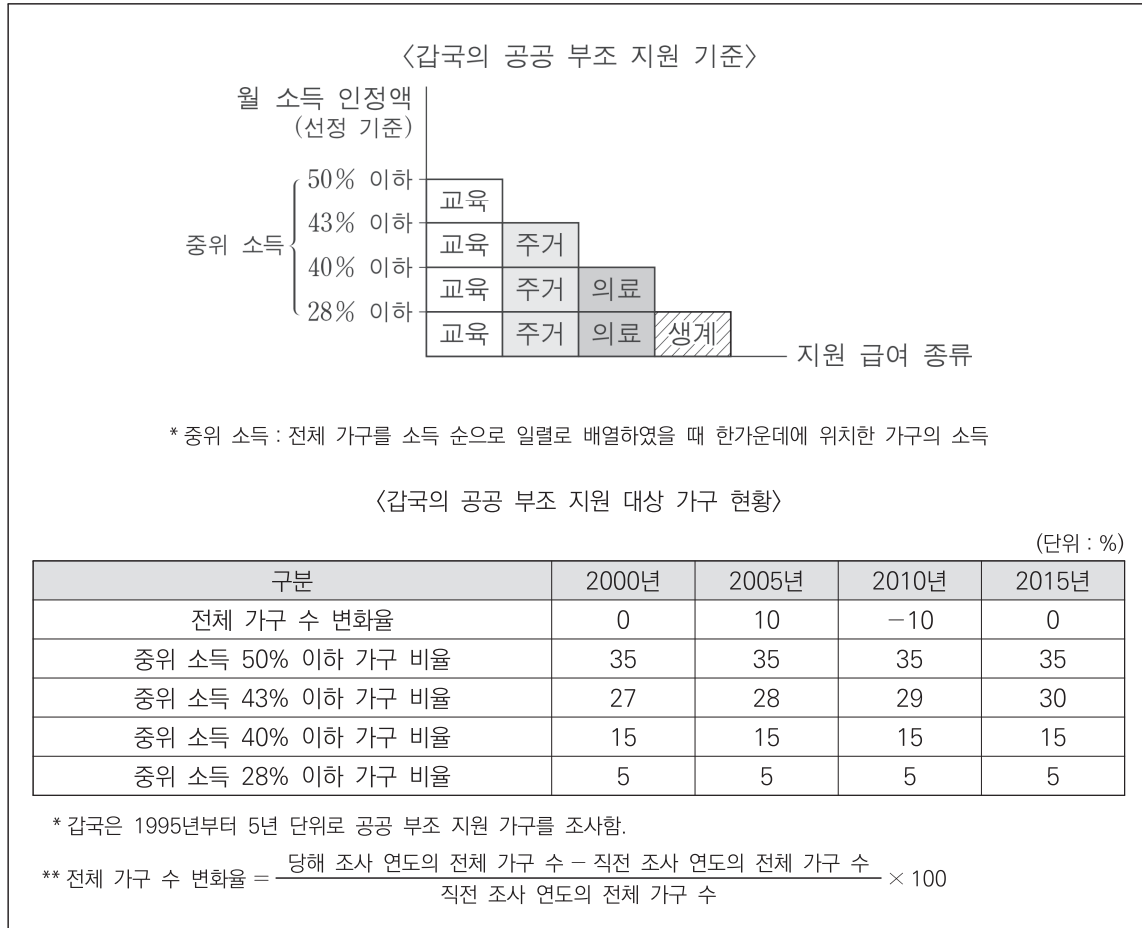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16년	월평균 소득 증가 <u>액</u>
빈곤 가구	100만 원	110만 원	10만 원
비빈곤 가구	500만 원	530만 원	30만 원

② 2015년 대비 2016년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빈곤 가구보다 비빈곤 가구가 크다. (○ / ×)

구분	2015년	2016년	월평균 소득 증가 <u>율</u>
빈곤 가구	100만 원	110만 원	10%
비빈곤 가구	500만 원	530만 원	6%

※ 수의 변화와 비율의 변화를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3점]



— <보 기> —

- ㄱ. 전체 가구 중 교육 급여 한 가지만 지원받는 가구 비율은 2010년과 2015년이 같다.
- ㄴ. 교육, 주거 급여 두 가지만 지원받는 가구 수는 2000년이 2015년보다 작다.
- ㄷ. 전체 가구 중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모두를 지원받는 가구 비율은 2000년이 2010년보다 낮다.
- ㄹ. 2005년 교육, 주거, 의료 급여 세 가지만 지원받는 가구 수는 2015년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모두를 지원받는 가구 수의 2배 이상이다.



18학년도 9월 평가원 14번 해설 / 정답 : ㄴ, ㄹ

해당 문제를 분석하기 이전에 해당 문제에서 활용되는 변화율의 원리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단위 :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전체 가구 수 변화율	0	10	-10

* 갑국은 1995년부터 5년 단위로 공공 보조 지원 가구를 조사함.

$$** \text{전체 가구 수 변화율} = \frac{\text{당해 조사 연도의 전체 가구 수} - \text{직전 조사 연도의 전체 가구 수}}{\text{직전 조사 연도의 전체 가구 수}} \times 100$$

2000년의 전체 가구 수와 2010년의 전체 가구 수는 같을까? 2000년의 전체 가구 수를 1,000명이라고 가정하고, 각 조사 연도의 전체 가구 수를 구해보자.

(단위 : 명)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전체 가구 수	1,000	1,100	990

같지 않다. 2005년에는 2000년의 전체 가구 수인 1,000명에서 10%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2005년의 전체 가구 수인 1,100명에서 10% 감소하였으므로 2000년과 2010년의 전체 가구 수가 다른 것이다.
기준이 되는 직전 조사 연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 경우에도 2010년의 전체 가구 수가 2000년의 전체 가구 수보다 작을까? 마찬가지로 2000년의 전체 가구 수를 1,000명이라고 가정하고, 각 조사 연도의 전체 가구 수를 구해보자.

(단위 :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전체 가구 수 변화율	0	-10	10

(단위 : 명)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전체 가구 수	1,000	900	990

이 경우에는 전체 가구 수가 어떻게 달라질까? 2005년에는 2000년의 전체 가구 수인 1,000명에서 10%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2005년의 전체 가구 수인 900명에서 10% 증가하였으므로 **2010년의 전체 가구 수가 2000년의 전체 가구 수보다 작다.**

〈선지 분석〉 - 2000년의 전체 가구 수를 1,000명으로 가정

ㄱ. 전체 가구 중 교육 급여 한 가지만 지원받는 가구 **비율**은 2010년과 2015년이 같다. (×)

구분	2010년	2015년
교육 급여 한 가지만 지원받는 가구 비율(%)	6 (35 - 29)	5 (35 - 30)

ㄴ. 교육, 주거 급여 두 가지만 지원받는 가구 **수**는 2000년이 2015년보다 작다. (○)

구분	2000년	2015년
전체 가구 수(명)	1,000	990
두 가지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비율(%)	12 (27 - 15)	15 (30 - 15)
두 가지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수(명)	120	120보다 높음

ㄷ. 전체 가구 중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모두를 지원받는 가구 **비율**은 2000년이 2010년보다 낮다. (×)

구분	2000년	2010년
네 가지 급여 모두를 지원받는 가구 비율(%)	5	5

ㄹ. 2005년 교육, 주거, 의료 급여 세 가지만 지원받는 가구 수는 2015년 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모두를 지원받는 가구 **수**의 2배 이상이다. (○)

구분	2005년	2015년
전체 가구 수(명)	1,100	990

(1) 2005년에 세 가지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비율 : 10%

(2) 2010년에 네 가지 급여 모두를 지원받는 가구 비율 : 5%

⇒ (1)의 비율이 (2)의 비율의 2배이므로 2005년과 2015년의 전체 가구 수만 비교하면 된다. 2005년의 전체 가구 수가 2015년의 전체 가구 수보다 많으므로 옳은 선지이다.

comment

[정답과 해설 182page]

① 분모가 증가하더라도 전체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와 ② 분자가 감소하더라도 전체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떤 때에 일어나는지 서술하라.

①

②

Chapter 01 기출 문제

01 17학년도 수능 18번

[정답과 해설 182page]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국의 경력 단절 여성 규모와 사유〉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5~64세 기혼 여성 인구 변화율		0	2	-2	0	0
경력 단절 여성 비율		20	20	20	20	20
경력 단절 사유	결혼	47	46	45	40	37
	임신·출산	20	24	21	20	24
	육아	25	26	30	31	32
	기타	8	4	4	9	7
	합계	100	100	100	100	100

$$* 15\sim64\text{세 기혼 여성 인구 변화율} = \frac{(\text{당해 연도 } 15\sim64\text{세 기혼 여성 수}) - (\text{전년도 } 15\sim64\text{세 기혼 여성 수})}{\text{전년도 } 15\sim64\text{세 기혼 여성 수}} \times 100$$

$$** \text{경력 단절 여성 비율} = \frac{\text{경력 단절 여성 수}}{15\sim64\text{세 기혼 여성 수}} \times 100$$

- ① 15~64세 기혼 여성의 수는 2012년이 2013년보다 많다.
- ②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1년이 2015년보다 많다.
- ③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 ④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1년이 2014년보다 적다.
- 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5년이다.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년 대비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변화율		0	-2.0	2.0
전체 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		1.7	1.8	1.9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구성비	초등학교	78.3	79.1	81.5
	중학교	16.8	15.9	13.3
	고등학교	4.9	5.0	5.2
	계	100	100	100

* 갑국의 초·중·고교 재학생을 전수 조사한 결과임.

- ① 2016년과 2018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같다.
- ② 2017년의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 ③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④ 2017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전체 초등학생 수의 과반이다.
- ⑤ 2016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4배 이상이다.

Chapter 02 가중평균

I 가중평균의 정의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해 구한 평균값**

I 단순 평균과 가중평균의 차이

단순 평균은 각 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곱해 구한 평균값이지만, 가중평균은 각 변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른 가중치를 곱해 구한 평균값이다.

(1) 단순 평균

○○ 고등학교 3학년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구해보자.
(단, ○○ 고등학교의 3학년 학급에는 1반과 2반만이 존재한다.)

구분	3학년 1반	3학년 2반
학급 인원	30명	30명
학급 사회·문화 평균 점수	40점	30점

○○ 고등학교의 3학년 1반과 2반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는 직관적으로 35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이 경우에는 3학년 1반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와 2반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더한 값을 2로 나누어서 계산할

것이다. ($\frac{40+30}{2} = 35$)

우리가 ○○ 고등학교 3학년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구할 때, **단순히 두 학급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더해서 2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두 반의 가중치(학급 인원)가 서로 같기 때문이다.**

(2) 가중평균

○○ 고등학교 3학년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구해보자.
(단, ○○ 고등학교의 3학년 학급에는 1반과 2반만이 존재한다.)

구분	3학년 1반	3학년 2반
학급 인원	30명	20명
학급 사회·문화 평균 점수	40점	30점

이 경우에는 단순 평균을 구하듯이 단순히 각 학급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더한 값을 2로 나누어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두 반의 가중치(학급 인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두 반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학급 사회·문화 평균 점수에 학급 인원이라는 가중치를 곱하는 가중평균을 이용하여 구해야 한다.

3학년 1반의 학급 인원은 30명, 3학년 2반의 학급 인원은 20명이므로 3학년 1반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에는 가중치 3을 곱하고, 3학년 2반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에는 가중치 2를 곱하면 된다. 곱한 두 값을 더한 것은 3학년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에 가중치 5를 곱한 값과 같다.

3학년 전체 사회·문화 평균 점수를 미지수 x 로 두고, 계산을 통해 x 의 값을 구해보자.

$$(3 \times 40) + (2 \times 30) = (5 \times x)$$

$$180 = 5x$$

$$x = 36$$

3학년 1반의 학급 인원은 2반의 학급 인원의 1.5배이므로 ○○ 고등학교 3학년의 사회·문화 평균 점수에서 2반의 평균 점수와 떨어져 있는 거리(6점)가 1반의 평균 점수와 떨어져 있는 거리(4점)의 1.5배인 것이다.

전체 평균은 가중치가 더 큰 쪽에 가까이 있다.

16학년도 수능 15번 변형

x 에 들어갈 비율을 구하여라. (단, ○○시는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시 지역별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단위 : %)

지역 \ 제도	(가)	(나)
A 지역	5.5	1.9
B 지역	7.6	x
전체	6.9	1.7



16학년도 수능 15번 변형 해설 / 정답 : 1.6

1. x 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 지역의 인구나 B 지역의 인구가 각각 전체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중치)을 알아야 한다.

2. 이는 ‘각 지역의 비율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가지고 각 지역의 인구의 상대적 비율을 구하면 된다. (가) 제도 수급자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

A 지역의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전체에서 1.4%p만큼 떨어져 있고, B 지역의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전체에서 0.7%p만큼 떨어져 있다.

이는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의 인구의 2배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의 인구의 2배이므로 전체 비율이 B 지역의 비율에 2배만큼 가까운 것이다.

(단위 : %)

지역 \ 제도	(가)
A 지역	5.5 (전체 - 1.4)
B 지역	7.6 (전체 + 0.7)
전체	6.9

3. 앞의 설명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해보자. 앞에서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의 인구의 2배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제 B 지역 인구의 비율에 가중치 2를 곱하고, A 지역 인구의 비율에 가중치 1을 곱해서 더한 수치가 전체 인구의 비율에 3을 곱한 값과 같은지를 확인하면 된다.

$$\Rightarrow (5.5 \times 1) + (7.6 \times 2) = 6.9 \times 3$$

4. 두 지역 인구의 비를 구하였으니 마지막으로 x 의 값을 구해보자.

(나) 제도에서 A 지역의 비율에 1을 곱하고, B 지역의 비율에 2를 곱한 값을 합한 것이 전체 비율에 3을 곱한 것과 같게 해주면 된다.

$$\Rightarrow (1.9 \times 1) + (x \times 2) = 1.7 \times 3$$

$$\Rightarrow 2x = 3.2$$

$$\Rightarrow x = 1.6$$

5. A 지역의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인 1.9%는 평균과 0.2%p만큼 차이가 나고,

B 지역의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인 1.6%는 평균과 0.1%p만큼 차이가 난다.

이는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의 인구의 2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위 : %)

지역 \ 제도	(나)
A 지역	1.9 (전체 + 0.2)
B 지역	1.6 (전체 - 0.1)
전체	1.7

A 지역 인구를 2,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각 제도 수혜자의 수를 구하여 표에 적어라.

〈자료〉 우리나라 A, B 지역 (가)~(다) 제도 수혜자 비율

(단위 : %)

구분	A 지역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가)	10.0	9.6	9.8	10.2	9.4	9.6
(나)	1.6	2.0	1.8	2.8	2.0	2.2
(다)	1.2	1.6	1.4	1.2	1.6	1.5

* 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는 동일함.

** 해당 지역 남성(여성) 수혜자 비율(%) = $\frac{\text{해당 지역 남성(여성) 수혜자 수}}{\text{해당 지역 남성(여성) 인구}} \times 100$

수혜자의 수

(단위 : 명)

구분	A 지역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가)						
(나)						
(다)						



21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변형 해설

- (1) 첫 번째 단서에 따라 A 지역과 B 지역의 총인구는 동일하므로 B 지역의 총인구도 2,000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수해자의 수를 각각 구하기 위해서는 A 지역과 B 지역에서 각각 남녀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을 알아야 한다.
- (3) 이는 ‘남녀의 비율이 각각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
- A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의 비율로부터 남녀의 비율이 각각 떨어져 있는 정도가 같으므로 남녀의 인구(가중치)가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

구분	A 지역		
	남성	여성	전체
(가)	10.0 (전체 +0.2)	9.6 (전체 -0.2)	9.8
(나)	1.6	2.0	1.8
(다)	1.2	1.6	1.4

- B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의 비율로부터 남자의 비율과 떨어져 있는 정도가 여자의 비율과 떨어져 있는 정도의 3배이므로 여자의 인구가 남자의 인구의 3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의 인구가 남자의 인구보다 많으므로 평균이 여자의 비율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다.

(단위 : %)

구분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가)	10.2 (전체 +0.6)	9.4 (전체 -0.2)	9.6
(나)	2.8	2.0	2.2
(다)	1.2	1.6	1.5

구분	A 지역	B 지역
남 : 여 비율 (%)	1 : 1	1 : 3
남 : 여 총인구 (명)	1000 : 1000	500 : 1500

(단위 : %)

구분	A 지역		
	남성	여성	전체
(가)	10.0 (전체 +0.2)	9.6 (전체 -0.2)	9.8
(나)	1.6	2.0	1.8
(다)	1.2	1.6	1.4

(단위 : %)

구분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가)	10.2 (전체 +0.6)	9.4 (전체 -0.2)	9.6
(나)	2.8	2.0	2.2
(다)	1.2	1.6	1.5

구분	A 지역	B 지역
남 : 여 비율 (%)	1 : 1	1 : 3
남 : 여 총인구(명)	1,000 : 1,000	500 : 1,500

- 위의 세 가지 표를 가지고 각 제도 수혜자 수를 구해보자.
- ㉠ B 지역의 (나) 제도 남성 수혜자 수, ㉡ B 지역의 (나) 제도 여성 수혜자 수, ㉢ B 지역의 (나) 제도 전체 수혜자 수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의 경우에는 B 지역의 남성 인구가 500명이고 수혜자 비율이 2.8%이므로 두 수를 곱해($500 \times 2.8\% = 14$) 구할 수 있다. ㉡의 경우에는 B 지역의 여성 인구가 1,500명이고 수혜자 비율이 2.0%이므로 두 수를 곱해($1,500 \times 2.0\% = 30$) 구할 수 있다. ㉢은 ㉠과 ㉡의 합이므로 44명이다.
- ㉢의 값이 44인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B 지역의 총인구는 2,000명이고, B 지역의 (나) 제도 전체 수혜자 비율은 2.2%이므로 두 수를 곱해($2,000 \times 2.2\% = 44$) 구할 수 있다.

수혜자의 수

(단위 : 명)

구분	A 지역			B 지역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가)	100	96	196	51	141	192
(나)	16	20	36	㉠ 14	㉡ 30	㉢ 44
(다)	12	16	28	6	24	30

Chapter 02 기출 문제

01

[정답과 해설 184page]

x, y 에 들어갈 비율을 구하여라. (단, 전체 인구는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로만 구성되며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의 비는 3 : 2이다.)

	(가) 제도 수급자 비율 (%)	(나) 제도 수급자 비율 (%)
전체 인구	7.5	10.0
도시 인구	4.5	8.0
농촌 인구	x	y

02

[정답과 해설 184page]

갑국에서 B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가 37명이라고 할 때, A 지역의 인구와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를 구하여라. (단,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다) 제도 수급자 비율 (%)
A 지역	3.4
B 지역	7.4
전체	4.2

A 지역의 인구	명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	명

Chapter 03 인구 부양비

인구 부양비 유형은 과거에 한 번 출제되고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21학년도 평가원, 수능부터 계속 출제되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문제에서 주어지기는 하지만, 문제에 주로 등장하는 용어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1) **유소년 인구** : 0~14세 인구, **부양 인구** : 15~64세 인구, **노인(노령) 인구** : 65세 이상 인구

$$(2) \text{총부양비} = \text{유소년 부양비} \left(\frac{\text{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right) + \text{노년 부양비} \left(\frac{\text{노인(노령)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right) \\ = \frac{\text{유소년 인구} + \text{노인(노령)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3)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인(노령) 인구}}{\text{유소년 인구}} \times 100$$

(4) **고령화 사회** : 전체 인구에서 노인(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고령 사회 : 전체 인구에서 노인(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초고령 사회 : 전체 인구에서 노인(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다음으로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통해 각 인구를 구하는 원리를 이해해 보자.

Q. 다음 표를 보고,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를 각각 구해보자.

부양 인구(명)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
100	60	50

$$* \text{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 \sim 14 \text{세 인구}) + \text{노인 인구}(65 \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 \sim 64 \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인 인구}(65 \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 \sim 14 \text{세 인구})} \times 100$$

- 부양 인구는 100명이고, 총부양비는 60이므로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합은 60명이다.

- 노령화 지수는 50이므로 계산을 통해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를 각각 구할 수 있다.

〈풀이 1〉 **노령화 지수 활용**

⇒ 노령화 지수가 50이므로

유소년 인구가 $2x$ 라면, 노인 인구는 x 이다.

$$\Rightarrow 2x + x = 60, 3x = 60$$

$$\Rightarrow x = 20$$

〈풀이 2〉 **유소년 인구 x , 노인 인구 y 로 두기**

$$\Rightarrow x + y = 60, \frac{y}{x} \times 100 = 50$$

$$\Rightarrow x + y = 60, y = 0.5x$$

$$\Rightarrow 1.5x = 60$$

$$\Rightarrow x = 40, y = 20$$

- 둘 중 본인이 편한 풀이 방식으로 풀면 된다.

21학년도 수능 18번 변형 (1)

다음 자료를 보고 제시된 모든 연도의 인구를 표에 채워 넣고,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단, 제시된 모든 연도의 부양 인구는 100명으로 동일하다.)

구분	t년	t+30년	t+60년
총부양비	70	64	56
노령화 지수	40	60	100

$$* \text{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 \text{노령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령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임.

(단위 : 명)

인구 \ 연도	t년	t+30년	t+60년
노령 인구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			
총인구			

① t년은 고령화 사회, t+30년은 고령 사회, t+60년은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

②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가장 높고, t+30년이 가장 낮다. ()

③ 유소년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는 노인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보다 작다. ()



21학년도 수능 18번 변형 (1) 해설 / 정답 : x, x, ○

(1)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부양 인구가 100명이므로, 각 연도의 유소년 인구와 노령 인구를 구해보자.

① t년(총부양비 70, 노령화 지수 40)

〈풀이 1〉 노령화 지수 활용

⇒ 유소년 인구가 $5x$ 라면, 노인 인구는 $2x$ 이다.
 ⇒ $5x + 2x = 70$, $7x = 70$
 ⇒ $x = 10$

〈풀이 2〉 유소년 인구 x , 노인 인구 y 로 두기

⇒ $x + y = 70$, $y = 0.4x$
 ⇒ $1.4x = 70$
 ⇒ $x = 50$, $y = 20$

② t+30년(총부양비 64, 노령화 지수 60)

〈풀이 1〉 노령화 지수 활용

⇒ 유소년 인구가 $5x$ 라면, 노인 인구는 $3x$ 이다.
 ⇒ $5x + 3x = 64$, $8x = 64$
 ⇒ $x = 8$

〈풀이 2〉 유소년 인구 x , 노인 인구 y 로 두기

⇒ $x + y = 64$, $y = 0.6x$
 ⇒ $1.6x = 64$
 ⇒ $x = 40$, $y = 24$

③ t+60년(총부양비 56, 노령화 지수 100)

〈풀이 1〉 노령화 지수 활용

⇒ 유소년 인구가 x 라면, 노인 인구는 x 이다.
 ⇒ $x + x = 56$, $2x = 56$
 ⇒ $x = 28$

〈풀이 2〉 유소년 인구 x , 노인 인구 y 로 두기

⇒ $x + y = 56$, $y = x$
 ⇒ $2x = 56$
 ⇒ $x = 28$, $y = 28$

(단위 : 명)

인구 \ 연도	t년	t+30년	t+60년
노령 인구	20	24	28
부양 인구	100	100	100
유소년 인구	50	40	28
총인구	170	164	156

⇒ 앞으로 부양 인구를 기준으로 한 문제에서 노인(노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를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단위 : 명)

인구 \ 연도	t년	t+30년	t+60년
노령 인구	20	24	28
부양 인구	100	100	100
유소년 인구	50	40	28
총인구	170	164	156

① t년은 고령화 사회, t+30년은 고령 사회, t+60년은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

→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t년은 약 11.8%($20/170 \times 100\%$) t+30년은 약 14.6%($24/164 \times 100\%$), t+60년은 약 17.9%($28/156 \times 100\%$)이다. 따라서 t년은 고령화 사회에 해당하고, t+30년과 t+60년은 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②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가장 높고, t+30년이 가장 낮다. (×)

→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t년은 $50/170 \times 100\%$, t+30년은 $40/164 \times 100\%$, t+60년은 $28/156 \times 100\%$ 이다. **세 비율의 대소 비교만 하면 되므로 각각의 비율을 엄밀히 구할 필요는 없다.**

→ $50/170$ 은 $1/4$ 보다 크고, $40/164$ 는 $1/4$ 보다 작으므로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t+30년보다 크다. 또한, $40/164$ 는 $1/5$ 보다 크고, $28/156$ 은 $1/5$ 보다 작으므로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30년이 t+60년보다 크다. 결론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이 가장 높고, t+60년이 가장 낮다.

→ **이와 같이 비율의 대소를 비교할 때, 분수를 활용한 어림셈으로 비교하는 것은 꽤 효율적인 방법이다.**

③ 유소년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는 노인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보다 작다. (○)

→ 유소년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는 $28/40$ 이고, 노인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는 $28/24$ 이다. 비율 파트에서 배웠듯이, **분자가 같은 경우 분모가 더 큰 쪽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유소년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는 노인 인구의 t+30년 대비 t+60년의 비보다 작다.

⇒ 비율과 변화율 파트에서도 언급했었지만,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큰 쪽의 비율이 더 높고,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큰 쪽의 비율이 더 낮다.**

21학년도 수능 18번 변형 (2)

다음 자료를 보고 제시된 모든 연도의 인구를 다음 표에 채워 넣어라. (단, 제시된 모든 연도의 유소년 인구는 100명으로 동일하다.)

구분	t년	t+30년	t+60년
총부양비	50	80	40
노령화 지수	40	60	100

* 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 \text{노령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령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임.

(단위 : 명)

인구 \ 연도	t년	t+30년	t+60년
노령 인구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			
총인구			



21학년도 수능 18번 변형 (2) 해설

(1)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유소년 인구가 100명이므로, 각 연도의 부양 인구와 노령 인구를 구해보자.

① t년(총부양비 50, 노령화 지수 40)

- t년의 노령화 지수가 40이므로 t년의 노령 인구는 40명이다. t년에 유소년 인구와 노령 인구의 합이 140명이고, 총부양비는 50이므로 t년에 유소년 인구와 노령 인구의 합(140명)은 부양 인구의 50%이다. t년의 부양 인구의 절반이 140명이므로 t년의 부양 인구는 $140 \times 2 = 280$ 명이다.

② t+30년(총부양비 80, 노령화 지수 60)

- t+30년의 노령화 지수가 60이므로 t+30년의 노령 인구는 60명이다. t+30년에 유소년 인구와 노령 인구의 합이 160명이고, 총부양비는 80이므로 t+30년에 유소년 인구와 노령 인구의 합(160명)은 부양 인구의 80%이다. t+30년의 부양 인구의 80%가 160명이므로 t+30년의 부양 인구는 200명이다.

③ t+60년(총부양비 40, 노령화 지수 100)

- t+60년의 노령화 지수가 100이므로 t+60년의 노령 인구는 100명이다. t+60년에 유소년 인구와 노령 인구의 합이 200명이고, 총부양비는 40이므로 t+60년에 유소년 인구와 노령 인구의 합(200명)은 부양 인구의 40%이다. t+60년의 부양 인구의 40%가 200명이므로 t+60년의 부양 인구는 500명이다.

(단위 : 명)

인구 \ 연도	t년	t+30년	t+60년
노령 인구	40	60	100
부양 인구	280	200	500
유소년 인구	100	100	100
총인구	420	360	700

※ 부양 인구가 기준인 문제는 ‘총부양비 $\Rightarrow$ 노령화 지수’ 순서로 계산하여 유소년 인구와 노인(노령) 인구를 구하고, 노인(노령) 인구나 유소년 인구가 기준인 문제는 ‘노령화 지수 $\Rightarrow$ 총부양비’ 순서로 계산하여 마지막에 부양 인구를 구하면 된다.

※ 유소년 인구를 기준으로 노인(노령) 인구를 구할 때는 유소년 인구에 노령화 지수를 곱하면 되므로, 노인(노령) 인구를 기준으로 유소년 인구를 구할 때는 노인(노령) 인구에 노령화 지수의 역수를 곱하면 된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t년 대비 t+20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증가하였다.)

구분	t년		t+2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령화 지수	25	40	50	60
총부양비	20	25	50	100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 + \text{노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함.

- ① t년에 갑국에서 부양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는 25명이다.
- ② t+20년에 갑국은 고령화 사회, 을국은 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 ③ t년과 달리 t+20년에 을국에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 ④ t년 대비 t+20년에 을국에서 유소년 인구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
- ⑤ t년과 t+20년 모두 부양 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총 부양 비용은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



21학년도 9월 평가원 16번 해설 / 답 : ②

(1) 유소년 인구에 관한 단서가 주어졌으므로 유소년 인구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이 문제에서는 t 년 대비 $t+20$ 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조건만 주었으므로 t 년에 갑국, 을국의 유소년 인구와 $t+20$ 년에 갑국, 을국의 유소년 인구를 각각 다른 수로 두어야 한다.

(2) t 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를 $100a$, t 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를 $100b$, $t+20$ 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를 $100c$, $t+20$ 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를 $100d$ 로 가정하자. 이때, 조건에 의하면 b 는 d 보다 더 크다. 계산 과정은 '21학년도 수능 18번 변형 (2) 풀이-(2)'와 유사하므로 생략하도록 할 것이다.

(단위 : 명)

구분	t년		t+20년	
	갑국	을국	갑국	을국
노인 인구	25a	40b	50c	60d
부양 인구	625a	560b	300c	160d
유소년 인구	100a	100b	100c	100d
총인구	750a	700b	450c	320d

〈선지 판단〉

- ① t 년에 갑국에서 부양 인구 625명당 노인 인구는 25명이다. t 년에 갑국의 유소년 100명당 노인 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가 25이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기 위해 이러한 선지를 낸 것이다.
- ②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t+20$ 년에 갑국은 약 11.1%($50/450 \times 100\%$)이고, 을국은 18.75%($60/320 \times 100\%$)이다.**
따라서 $t+20$ 년에 갑국은 고령화 사회, 을국은 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이다. 그러므로 이 선지를 판단할 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총인구가 노인 인구의 7배에서 14배 사이면 그 사회는 고령화 사회, 총인구가 노인 인구의 5배에서 7배 사이면 그 사회는 고령 사회, 총인구가 노인 인구의 5배보다 작으면 그 사회는 초고령 사회**라는 점을 활용하면 신속한 선지 판별이 가능하다. 단, **총인구가 노인 인구의 7배나 14배 근처에 있는 값이라면, 다른 선지를 우선 판단하고 엄밀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다.**
- ③ 을국의 경우 t 년과 $t+20$ 년 모두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작으므로 유소년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많다.
- ④ t 년 대비 $t+20$ 년에 을국에서 노인 인구 증가율($(60d - 40b)/40b \times 100\% = (150d - 100b)/100b \times 100\%$)은 유소년 인구 증가율($(100d - 100b)/100b \times 100\%$)보다 크다.
- ⑤ t 년과 $t+20$ 년 모두 을국이 갑국보다 총부양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비용에 해당하는 총 부양 비용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 갑국과 을국의 1인당 부양 비용이 동일하다는 단서도 없으며, 설령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갑국과 을국의 인구비가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두 국가의 총 부양 비용은 비교할 수 없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관련 통계이다. 갑국과 을국의 총인구는 t년에 동일하며, t+80년에 각각 2배로 증가하였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80년	t년	t+80년
합계 출산율(명)	4.4	2.4	3.1	1.1
전체 인구 대비 0~14세 인구 비율(%)	60	30	50	20
노령화 지수	25	50	20	125

* 합계 출산율 :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65세 이상 인구}}{\text{0~14세 인구}} \times 100$$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함.

- ① 갑국의 경우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는 t+80년이 t년보다 크다.
- ② 을국의 경우 t년에 비해 t+8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원인은 합계 출산율 감소이다.
- ③ t+80년의 15~64세 인구 비율 대비 0~14세 인구 비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 ④ t년과 t+80년을 비교했을 때 을국은 갑국과 달리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였다.
- ⑤ t년 대비 t+80년의 경우 갑국과 을국 모두 0~14세 인구 감소가 노령화 지수의 상승 원인이다.

21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해설 / 답 : ④

- (1) 갑국과 을국의 각 시기에 전체 인구 대비 0~14세 인구 비율(%)과 노령화 지수가 모두 주어졌으므로 제시된 모든 시기의 15~64세 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모두 구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갑국		을국	
	t년	t+80년	t년	t+8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5(=60×0.25)	15(=30×0.5)	10(=50×0.2)	25(=20×1.25)
15~64세 인구 비율	25	55	40	55
0~14세 인구 비율	60	30	50	20

- (2) 갑국과 을국의 총인구는 t년에 동일하며, t+80년에 각각 2배로 증가하였으므로 갑국과 을국의 각 시기에 0~14세 인구, 15~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를 각각 구할 수 있다. t년 갑국과 을국의 총인구를 편의상 100명으로 가정하자.

(단위 : 명)

구분	갑국		을국	
	t년	t+80년	t년	t+80년
65세 이상 인구	15	30	10	50
15~64세 인구	25	110	40	110
0~14세 인구	60	60	50	40
총인구	100	200	100	200

〈선지 판단〉

- 갑국의 경우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가 t년은 15/25이고, t+80년은 15/55(=30/110)이다. 분자가 같을 때 분모의 수가 큰 것이 더 작은 수이므로, 갑국의 경우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는 t년이 t+80년보다 크다.
- 을국의 경우 t년에 비해 t+80년에 합계 출산율이 감소하였고(3.1→1.1), 합계 출산율의 감소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t+80년의 15~64세 인구 비율 대비 0~14세 인구 비율이 갑국은 30/55(=60/110)이고, 을국은 20/55(=40/110)이다. 분모가 같을 때 분자의 수가 큰 것이 더 큰 수이므로, t+80년의 15~64세 인구 비율 대비 0~14세 인구 비율은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갑국은 t년과 t+80년 모두 15%이고, 을국은 t년에 10%에서 t+80년에 25%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t년과 t+80년을 비교했을 때 갑국은 모두 고령 사회이지만, 을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변화하였다.
- 갑국은 t년 대비 t+80년의 0~14세 인구에 변동이 없고,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갑국은 노령화 지수의 상승 원인을 0~14세 인구 감소가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을국은 t년 대비 t+80년의 0~14세 인구 감소율보다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크다. 따라서, 0~14세 인구 감소보다는 65세 이상 인구 증가가 노령화 지수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을국에서는 0~14세 인구 감소가 을국의 노령화 지수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맞다.

03 기출 문제

01 20년 10월 교육청 18번

[정답과 해설 186page]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총인구 중 연령대별 인구 비율〉

(단위 :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0~14세 인구	20	20	10
65세 이상 인구	10	20	30

* 유소년 부양비 =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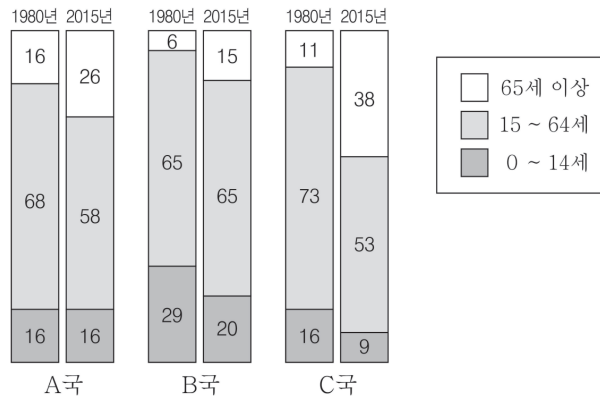
** 노년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 노령화 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 × 100

- ① 노령화 지수는 2010년이 1990년의 3배이다.
- ② 유소년 부양비는 1990년보다 2000년이 작다.
- ③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은 2000년보다 2010년이 크다.
- ④ 15~64세 인구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보다 2010년이 많다.
- ⑤ 2000년 대비 2010년에 노년 부양비는 하락하였고, 노령화 지수는 상승하였다.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3점]

<연령대별 인구 비율(%)의 변화 추이>



* 노년 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 유소년 부양비 : (0~14세 인구 / 15~64세 인구) × 100

<보 기>

- ㄱ.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큰 국가는 1980년과 2015년에 동일하다.
- ㄴ. 2015년에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C국이다.
- ㄷ. 1980년 대비 2015년에 A국과 B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였다.
- ㄹ. 1980년 대비 2015년에 A~C국 모두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였다.

03 15년 10월 교육청 14번

[정답과 해설 188page]

표는 A국의 인구 부양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유소년 부양비	40	33	20
노년 부양비	10	12	20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0\sim 14\text{세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년 부양비}(\%) = \frac{65\text{세 이상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① 1990년에는 총인구 중 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다.
- ② 2000년에는 0~14세 인구 100명을 부양하는 데 15~64세 인구는 33명이 필요하다.
- ③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0년이 2010년보다 높다.
- ④ 총인구 중 15~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이 2010년보다 높다.
- 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이 1990년의 2배보다 크다.

04 22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과 해설 189page]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A 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00년에 비해 2020년 A 지역의 총인구는 20% 증가하였다. A 지역의 노령화 지수는 2000년에 60, 2020년에 125였다. 단, 음영 처리된 부분은 주어진 자료와 단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단위 : %)

구분	2000년	2020년
0~14세 인구 (유소년 인구)		20
15~64세 인구 (부양 인구)		
65세 이상 인구 (노인 인구)	15	

$$* \text{노령화 지수} = (65\text{세 이상 인구} / 0\sim 1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유소년 부양비} = (0\sim 14\text{세 인구} / 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인 부양비} = (65\text{세 이상 인구} / 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총부양비} = (0\sim 14\text{세 인구} + 65\text{세 이상 인구}) / 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① 2020년에 노인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배 이상이다.
- ② 2000년에 비해 2020년의 부양 인구는 감소하였다.
- ③ 2000년 유소년 부양비와 2020년 노인 부양비는 동일하다.
- ④ 2000년에 비해 2020년의 노인 인구는 10% 증가하였고, 유소년 인구는 5% 감소하였다.
- ⑤ 2000년에 비해 202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였고, 노인 부양비와 총부양비는 모두 증가하였다.

05 22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정답과 해설 190page]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 전체 인구와 을국 전체 인구는 각각 t년 대비 t+60년에 10% 증가하였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60년	t년	t+6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10	20	10	30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50	200	40	300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0\sim14\text{세 인구}}{15\sim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년 부양비} = \frac{65\text{세 이상 인구}}{15\sim64\text{세 인구}} \times 100$$

- ① t년의 노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② t+6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③ t년 대비 t+60년에 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배 증가하였다
- ④ t년 대비 t+60년에 갑국과 을국 모두 15~64세 인구는 증가하였다.
- ⑤ t년 대비 t+60년에 갑국의 0~14세 인구는 증가하였고 을국의 0~14세 인구는 감소하였다.

06 22학년도 수능 20번

[정답과 해설 191page]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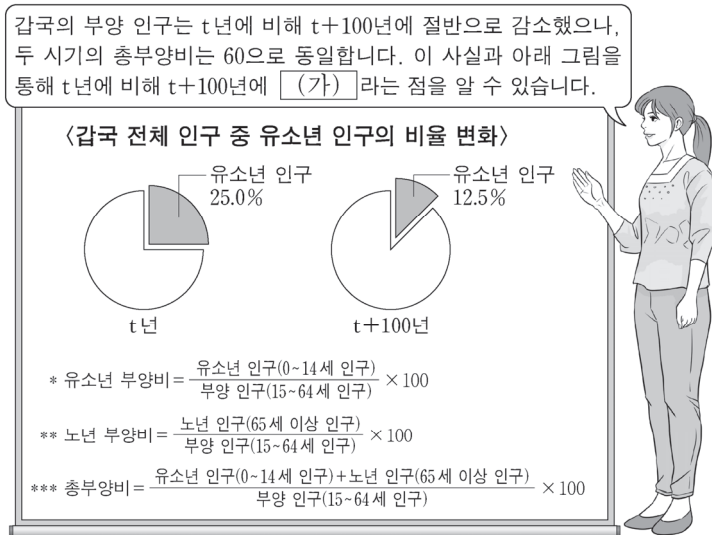
갑국에서 t+10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0세~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1/2이고, t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이다. 단, t년과 t+100년의 부양 인구(15세~64세 인구)는 동일하다. 표는 갑국의 연도별 총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t년	t+100년
총부양비	100	150

- * 노령화 지수 = (노인 인구 / 유소년 인구) × 100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인 인구 / 부양 인구) × 100
 **** 총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노인 인구) / 부양 인구] × 100

- ① t년 대비 t+100년에 전체 인구는 50% 증가하였다.
- ② t년 대비 t+100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50% 감소하였다.
- ③ t+100년 노령화 지수는 t년 노령화 지수의 8배이다.
- ④ t+100년 노년 부양비는 t년 노년 부양비의 4배이다.
- ⑤ t년의 유소년 인구와 t+100년의 노인 인구는 동일하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3점]



— <보 기> —

- ㄱ. t년 대비 t+100년에 유소년 인구는 30% 감소하였다.
- ㄴ. t년의 노년 인구와 t+100년의 노년 인구는 동일하다.
- ㄷ.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t년에 비해 t+100년이 높다.
- ㄹ. (가)에는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노년 부양비는 2배가 되었다'가 들어갈 수 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현재(t년) 갑국은 표와 같은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갑국 정부는 향후(t+100년) 발생할 인구 변화를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예측하여 A, B의 결과를 얻었다. t년에 부양 인구(15~6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며, t+100년에도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라고 가정한다.

구분	현재(t년)	t+100년의 시나리오 예측 결과	
		A	B
유소년 인구 (0~14세 인구)	750만 명	t년 대비 20% 증가	t년 대비 20% 감소
노년 인구 (65세 이상 인구)	250만 명	t년 대비 20% 증가	t년 대비 140% 증가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text{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text{총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 + \text{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① 노년 부양비는 A가 현재보다 크다.
- ② 총부양비는 B가 현재보다 크다.
- ③ 유소년 부양비는 A가 B의 2배이다.
- ④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B가 A의 2배이다.
- 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B보다 A에서 더 부각된다.

09 23학년도 수능 20번

[정답과 해설 194page]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국에서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20%이고 t+5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28%이다. t년 대비 t+50년에 전체 인구는 25% 증가하였고 유소년 인구는 12.5% 감소하였다. t년 대비 t+50년에 노년 부양비는 150% 증가하였다.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14\text{세 인구})}{\text{부양 인구}(15\sim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피부양 인구} = \text{유소년 인구}(0\sim14\text{세 인구}) + \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

- ① t년의 유소년 인구와 t+50년의 노년 인구는 동일하다.
- ② t년 대비 t+50년에 전체 인구 증가율은 피부양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
- ③ t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과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은 동일하다.
- ④ t년보다 t+50년에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 ⑤ t년보다 t+50년에 부양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10 24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과 해설 195page]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t+50년의 총인구는 t년의 2배이고, t+100년의 총인구는 t년의 1.5배이다. 갑국 총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과 t+50년이 각각 40%, t+100년이 30%이다. t+50년의 노년 부양비는 75로 t년의 3배이고, t+100년의 노령화 지수는 250이다.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sim1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14\text{세 인구})}{\text{부양 인구}(15\sim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64\text{세 인구})} \times 100$$

$$**** \text{총부양비} = \text{유소년 부양비} + \text{노년 부양비}$$

- ① t+50년의 총부양비는 t년보다 크다.
- ② t+50년의 노령화 지수는 t년의 5배이다.
- ③ t+50년의 부양 인구는 t년에 비해 200% 증가하였다.
- ④ t+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50년보다 적다.
- ⑤ t년, t+50년, t+100년 중 유소년 부양비는 t+50년이 가장 크고, t+100년이 가장 작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 하나이다.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하였고,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하였다. 단,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frac{B+C}{A}$	$\frac{2}{3}$	1	$\frac{7}{13}$	1
$\frac{B}{C}$	$\frac{1}{3}$	$\frac{2}{3}$	$\frac{1}{6}$	$\frac{2}{3}$

* 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sim 14\text{세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text{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sim 64\text{세 인구})} \times 100$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함.

- ① t년에 노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 ② t+50년에 유소년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하다.
- ③ t+50년에 을국은 갑국과 달리 초고령 사회이다.
- ④ t년에서 t+50년 사이에 을국에서는 갑국과 달리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 ⑤ t년에 부양 인구는 을국이 갑국보다 많고, t+50년에 부양 인구는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

12 24학년도 수능 20번

[정답과 해설 197page]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10% 감소하였고, 을국의 전체 인구는 20% 감소하였다. 단,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합계 출산율(명)	4.2	1.8	1.5	0.9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	50	60	50	55
노령화 지수	25	100	150	200

* 합계 출산율 :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함.

- ① t년과 t+50년 모두 갑국은 을국에 비해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② t년과 t+50년에 갑국과 을국은 모두 초고령 사회이다.
- ③ t년 대비 t+50년의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 ④ t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t+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 ⑤ t년에 노년 인구는 을국이 갑국의 3배이고, t+50년에 노년 인구는 을국이 갑국의 1.5배이다.

13 25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과 해설 198page]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3점]

t년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같다. 갑국에서 t+50년의 인구는 t년의 2배이고, 을국에서 t+50년의 인구는 t년의 3배이다. 단, 복지 지출의 필요성은 복지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구에 비례한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	10	35	10	㉠
노령화 지수	20	140	㉡	100
총부양비	㉢	㉣	100	10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 \text{유소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text{노년 부양비}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부양 인구(15~64세 인구)}} \times 100$$

$$**** \text{총부양비} = \text{유소년 부양비} + \text{노년 부양비}$$

<보 기>

- ㄱ. ㉠과 ㉡은 같고, ㉣은 ㉢보다 크다.
- ㄴ. 을국의 t+50년 부양 인구는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의 3배이다.
- ㄷ. t년 노년 부양비의 경우 갑국이 을국보다 크고, t+50년 유소년 부양비의 경우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 ㄹ. 갑국과 을국 모두 t년 대비 t+50년에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커졌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조건〉

1. 갑국 t년의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는 부양 인구(15~64세 인구)의 50%이고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의 3배이다.
2. A 시기는 t년 대비 t+30년으로, B 시기는 t+30년 대비 t+50년으로 인구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다.
3. A 시기와 B 시기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
4. 세대 간 갈등의 정도는 노년 부양비에 비례하고, 경제 성장 동력은 부양 인구에 비례한다.

〈A 시기와 B 시기의 인구 변화 양상 예측〉

구분	A 시기	B 시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	감소	감소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	변화 없음	감소
유소년 부양비	감소	증가

$$* \text{유소년(노년) 부양비} = \frac{\text{유소년(노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text{총부양비} = \text{유소년 부양비} + \text{노년 부양비}$$

$$*** \text{피부양 인구} = \text{유소년 인구} + \text{노년 인구}$$

- ① A 시기에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경제 성장 동력이 저하될 것이다.
- ② B 시기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 ③ 세대 간 갈등은 B 시기보다 A 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
- ④ t년의 총부양비는 100보다 작고, t+30년의 총부양비는 100이다.
- ⑤ t+50년의 노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30년보다 적을 것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t년의 부양 인구(15~64세 인구)는 노년 인구의 7배이며, 노령화 지수는 50이다. 표는 기간별 인구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A 기간은 t년 대비 t+30년으로, B 기간은 t+30년 대비 t+50년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단, A 기간과 B 기간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

구분	A 기간	B 기간
노령화 지수 증가율(%)	60	50
노년 인구 증가율(%)	100	50

$$* \text{노령화 지수} = \frac{\text{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text{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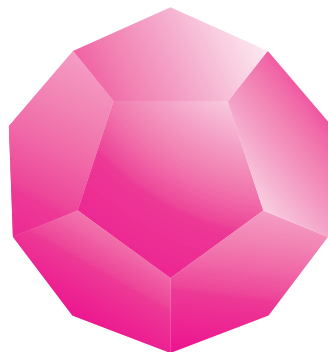
〈조건〉

- 노동력 부족 정도, 세대 간 갈등 정도,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아래의 조건으로만 각각 판단한다.
- 1.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 인구와 부(-)의 관계에 있다.
- 2.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 3.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유소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 \text{노년(유소년) 부양비} = \frac{\text{노년(유소년) 인구}}{\text{부양 인구}} \times 100$$

- ① A 기간에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노년 인구는 증가하였다.
- ② B 기간에 부양 인구와 노년 인구는 모두 증가하였다.
- ③ A 기간과 B 기간에 증가한 노년 인구는 동일하다.
- ④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t+50년보다 t+30년이 크다.
- ⑤ 노동력 부족 정도는 t+50년보다 t+30년이, 세대 간 갈등 정도는 t+30년보다 t+50년이 크다.

기술의 파괴효과



사탐 영역
사회·문화

사회·문화

해설

빠른 정답

I. 개념 파트

(1) 사회·문화 현상 vs 자연 현상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③	2	③	3	③	4	②	5	④
6	②	7	④	8	③	9	④	10	④
11	⑤	12	①						

(2)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①	5	③
6	ㄷ, ㄹ	7	③	8	②	9	⑤	10	②
11	④	12	ㄷ	13	②	14	ㄷ, ㄹ		

(3)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⑤	2	④	3	④	4	①	5	ㄴ, ㄷ
6	④	7	③	8	ㄱ, ㄴ	9	③	10	②
11	ㄴ, ㄷ	12	③	13	ㄴ, ㄹ	14	④	15	⑤
16	④	17	ㄴ	18	②				

(4) 자료 수집 방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②	2	④	3	③	4	④	5	⑤
6	③	7	⑤	8	②	9	⑤	10	②
11	①	12	④						

(5)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③	2	③	3	③	4	②	5	ㄱ, ㄴ

(6) 사회화 & 지위와 역할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⑤	2	②	3	⑤	4	ㄱ, ㄷ	5	ㄴ, ㄹ
6	ㄴ, ㄹ	7	①	8	④	9	②	10	②
11	⑤	12	④						

(7)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④	2	⑤	3	⑤	4	⑤	5	⑤
6	⑤	7	ㄴ, ㄷ	8	⑤	9	⑤	10	②
11	ㄴ, ㄹ	12	⑤	13	②	14	④	15	⑤
16	③	17	ㄱ, ㄷ	18	④	19	③	20	①
21	①	22	ㄴ, ㄹ	23	①	24	③	25	③
26	①								

(8)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ㄴ, ㄷ	2	②	3	ㄴ, ㄷ	4	②	5	④
6	ㄷ, ㄹ	7	ㄱ, ㄴ	8	ㄴ, ㄹ	9	ㄱ, ㄴ	10	ㄱ, ㄴ
11	ㄴ, ㄹ	12	ㄱ, ㄷ	13	ㄱ, ㄴ	14	ㄴ, ㄷ	15	ㄴ, ㄹ
16	ㄱ, ㄷ								

(9) 일탈 이론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⑤	2	ㄱ, ㄴ	3	②	4	②	5	①
6	①	7	①	8	①	9	①	10	④
11	③	12	③						

(10) 문화의 의미와 속성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ㄱ, ㄴ, ㄷ	2	①	3	③	4	③	5	ㄱ, ㄴ
6	②	7	ㄷ, ㄹ	8	⑤	9	③	10	②
11	⑤	12	②	13	①	14	①	15	③

(11) 문화 이해 태도 및 문화 이해의 관점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④	2	④	3	②	4	④	5	①
6	③	7	ㄱ	8	②	9	④	10	⑤
11	④	12	ㄱ, ㄴ	13	ㄱ, ㄴ	14	ㄱ, ㄴ		

(12)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④	2	⑤	3	ㄴ, ㄷ	4	③	5	①
6	⑤	7	ㄴ, ㄷ	8	④	9	③	10	①
11	⑤	12	ㄴ, ㄷ	13	⑤	14	③	15	①
16	⑤	17	②	18	②	19	②		

(13) 문화 변동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ㄴ, ㄷ, ㄹ	2	④	3	③	4	①	5	②
6	⑤	7	⑤	8	③	9	③	10	①
11	⑤	12	①	13	④	14	⑤	15	①
16	⑤	17	⑤	18	③				

(14)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ㄷ, ㄹ	2	⑤	3	ㄴ, ㄷ	4	ㄱ, ㄷ	5	ㄷ, ㄹ
6	ㄱ, ㄴ	7	ㄱ, ㄴ	8	④				

(15)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①	2	③	3	③	4	③	5	⑤
6	③	7	⑤	8	①	9	ㄴ, ㄷ	10	③
11	②	12	ㄴ, ㄷ	13	②	14	⑤	15	①
16	ㄴ, ㄷ	17	②	18	⑤	19	⑤	20	④
21	②	22	ㄷ	23	⑤				

(16) 사회 변동 이론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ㄴ, ㄷ	2	①	3	①	4	④	5	ㄱ, ㄴ
6	②	7	ㄴ, ㄷ	8	ㄷ, ㄷ	9	①	10	③
11	ㄴ, ㄷ	12	ㄱ, ㄷ						

(17) 사회 운동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⑤	2	①	3	④	4	ㄷ, ㄷ	5	⑤
6	②	7	ㄱ, ㄴ	8	②	9	③	10	ㄴ, ㄷ
11	⑤								

(18) 현대 사회의 변화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①	2	⑤	3	②	4	②	5	①
6	ㄱ, ㄷ	7	②	8	①	9	④	10	⑤
11	⑤	12	⑤						

II. 문제 풀이법 파트

Chapter 1. 구분 유형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③	2	②	3	ㄱ, ㄴ	4	③		

Chapter 2. 개방형 문제 유형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⑤	2	④	3	⑤	4	②	5	ㄱ, ㄴ
6	③	7	⑤	8	ㄴ, ㄷ	9	ㄴ, ㄷ	10	⑤
11	ㄷ, ㄹ	12	⑤						

Chapter 3. 채점 및 카드 게임 유형

(1) 채점 유형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④	2	⑤	3	④	4	ㄱ, ㄴ	5	③
6	④	7	⑤	8	ㄱ	9	⑤	10	①
11	①	12	ㄴ, ㄷ						

(2) 카드 게임 유형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②								

III. 표 파트

Chapter 1. 비율과 변화율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④	2	②						

Chapter 2. 가중평균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x = 12\%, y = 13\%$	2	A 지역의 인구 : 2,000명,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 : 68명

Chapter 3. 인구 부양비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④	2	ㄴ, ㄷ	3	⑤	4	⑤	5	④
6	③	7	ㄴ, ㄷ	8	④	9	③	10	②
11	⑤	12	④	13	ㄴ, ㄷ	14	②	15	③

Chapter 4. 사회 보장 제도

(1) 가중평균을 활용한 문제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⑤	2	②	3	②	4	⑤	5	④
6	④								

(2)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푸는 문제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ㄱ, ㄷ	2	②	3	⑤	4	⑤		

(3) 일반 사회 보장 제도 문제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③	2	ㄱ, ㄷ	3	②	4	ㄴ, ㄷ	5	ㄴ, ㄷ

Chapter 5. 계층 이동

(1) 2022학년도부터의 출제 유형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⑤	2	ㄱ, ㄷ	3	ㄱ, ㄴ	4	④	5	②
6	④	7	ㄴ, ㄷ	8	ㄴ, ㄷ	9	⑤	10	④
11	③	12	⑤						

Chapter 6. 임금 및 성 불평등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ㄴ, ㄷ	2	③	3	①	4	ㄴ, ㄷ	5	③
6	ㄱ, ㄷ	7	⑤	8	④	9	①	10	③

Chapter 7. 빈곤 유형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문항번호	정 답
1	③	2	ㄷ, ㄹ	3	ㄷ, ㄹ				

Part
01

개념 파트



02 기출 문제

(1) 사회·문화 현상 vs 자연 현상

01 22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 ②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③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 ④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02 22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④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⑤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03 22학년도 수능 1번

정답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나타난다.
- ②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③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한편, 자연 현상은 물가치적이다.**
- ④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⑤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자연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04 23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 : ②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지만, ㉠과 ㉢ 모두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렸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⑤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05 23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불가치적이다.
그렇지만, ㉠과 ㉡ 모두 자연 현상이므로 틀렸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나타난다.
- ③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 ④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06 23학년도 수능 1번

정답 : ②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⑤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07 24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과 같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자연 현상이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 ③ ㉣과 같은 자연 현상과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④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과 같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 ㉡과 같은 자연 현상과 ㉢,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08 24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

〈선지 분석〉

- ①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존재 법칙이 아니라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자연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과 같은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⑤ ㉣과 같은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09 24학년도 수능 1번

정답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

〈선지 분석〉

- ① ㉠과 같은 자연 현상은 물가치적이다.
- ② ㉡과 같은 자연 현상은 당위 법칙이 아니라 존재 법칙을 따른다.
- ③ ㉢과 같은 자연 현상은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④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라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10 25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과 같은 자연 현상은 당위 법칙이 아니라 존재 법칙을 따른다.
- ②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라 확률의 원리를 따른다.
- ③ ㉢과 같은 자연 현상은 물가치적이고,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④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과 같은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⑤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 ㉢과 같은 자연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11 25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 : ㉔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㉒, ㉓, ㉔	㉑

※ 특수 오일을 개발한 주체가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고 ㉓을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오일이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특수 오일 자체가 일으키는 현상으로서 자연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선지 분석〉

- ① ㉑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② ㉒과 같은 자연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아니라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㉒, ㉓과 같은 자연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지 않고 몰가치적이다.
- ④ ㉓, ㉔과 같은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㉔과 같은 자연 현상과 달리 ㉑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

12 25학년도 수능 1번

정답 : ㉑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㉒, ㉔	㉑, ㉓, ㉔

〈선지 분석〉

- ① ㉑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② ㉒과 같은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③ ㉓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아니라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㉓, ㉔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몰가치적이지 않고 가치 함축적이다.
- ⑤ ㉔과 같은 자연 현상에 비해 ㉓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성이 강하다.

(2)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01 21학년도 6월 평가원 8번

정답 : ①

갑	을	병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선지 분석〉

- ① **기능론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③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 측면이 아니라 미시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④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⑤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02 21학년도 9월 평가원 6번

정답 : ②

갑	을	병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기능론

〈선지 분석〉

- ① 갈등론은 결혼이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 체계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②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한다.**
- ③ 기능론은 결혼 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을 충원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④ 갈등론과 기능론 모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 ⑤ 결혼 제도와 다른 사회 제도 간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03 21학년도 수능 14번

정답 : ③

갑	을	병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	기능론

〈선지 분석〉

- 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 측면이 아니라 미시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②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③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④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⑤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04 22학년도 6월 평가원 18번

정답 : ①

(가)	(나)	(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	기능론	갈등론

〈선지 분석〉

- 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③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④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연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⑤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발생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뿐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으로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갈등론을 구분할 수 있다.

05 22학년도 9월 평가원 2번

정답 : ③

갑	을	병
기능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

〈선지 분석〉

- ①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②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③ **갈등론은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며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 ④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 ⑤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06 22학년도 수능 3번

정답 : ㄷ, ㄹ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두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한 C는 기능론이다.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관점은 기능론과 갈등론이므로 세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한 B는 갈등론, ‘아니요’라고 답한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가)에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예’, 기능론과 갈등론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A	B	C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	기능론

〈선지 분석〉

- ㄱ.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ㄴ. 사회 각 부분의 통합과 균형을 강조하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ㄷ. **기능론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달리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
- ㄹ.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뿐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7 23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정답 : ③

(가)	(나)	(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	기능론	갈등론

〈선지 분석〉

- ①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②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③ **갈등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대립과 투쟁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 ④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⑤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기능론이다.

08 23학년도 9월 평가원 14번

정답 : ②

갑	을	병
기능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

〈선지 분석〉

- ①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②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기득권층이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④ 갈등론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본다.
- ⑤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09 23학년도 수능 3번

정답 : ⑤

‘경쟁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전문화로 인한 업무 분화는 무한 경쟁이 파괴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등의 내용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기능론임을 알 수 있다.

〈선지 분석〉

- ① 기능론은 사회의 변동보다는 안정을 중시한다. 사회의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하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②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③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④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⑤ **기능론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0 24학년도 6월 평가원 3번

정답 : ②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희소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투쟁하며, 두 집단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갈등은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A는 갈등론이다. 한편, 갈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균형을 유지하려는 사회 체계의 속성으로 인하여 머지않아 조화롭게 조정된다고 보는 B는 기능론이다.

A	B
갈등론	기능론

〈선지 분석〉

- ①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은 갈등론(A)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② **기능론(B)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 ③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고 비판을 받는 관점은 갈등론(A)이 아니라 기능론(B)이다.
- ④ 기능론(B)은 갈등론(A)과 달리 질서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쉽다. 한편, 갈등론(A)은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쉽다.
- ⑤ 갈등론(A)과 기능론(B)은 모두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11 24학년도 수능 4번

정답 : ④

갑, 을의 설명에 대응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발언자	설명	관점
갑	사회가 생물 유기체처럼 균형을 유지한다고 전제한다. 조화와 균형은 정상적 상태로, 부조화와 불균형은 병리적 상태로 본다.	기능론
을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기능론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한다.	갈등론

갑은 옳은 설명을 제시했으므로 A는 기능론이다. 을은 B의 내용은 없고, A와 C의 내용만 있으므로 B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 C는 갈등론이다.

〈선지 분석〉

- ① 개인의 상황 정의와 의미 해석을 강조하는 관점은 기능론(A)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B)이다.
- ②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B)이 아니라 갈등론(C)이다.
- ③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갈등론(C)이 아니라 기능론(A)이다.
- ④ **갈등론(C)은 기능론(A), 상징적 상호 작용론(B)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질문으로 기능론(A)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B)은 구분할 수 없다.**
- ⑤ 기능론(A)은 갈등론(C), 상징적 상호 작용론(B)과 달리 사회 각 제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한다. 따라서 해당 질문으로 상징적 상호 작용론(B)과 갈등론(C)은 구분할 수 없다.

12 25학년도 6월 평가원 2번

정답 : ㄷ

필자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 사회 내 구조화된 관계에 의해 규정된 역할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 과정을 고려해야만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구성원의 이익과 집합체의 이익 간 불일치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던 상황에서도 집합체가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한다고 본다. 이러한 필자의 관점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사회 속의 한 부분으로서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되며, 사회는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기능론이다.

※ 쉽지 않은 제시문입니다. ‘이익 간 불일치, 사회적 갈등’과 같은 용어를 통해 학생들이 필자의 관점을 갈등론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 제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췌독을 통해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쓰기 보다는 제시문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잡으시길 권합니다.

〈선지 분석〉

- ㄱ.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ㄴ. 기능론은 질서와 안정에 기반한 점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 ㄷ. **기능론은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13 25학년도 9월 평가원 6번

정답 : ②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 갑의 관점은 갈등론, 계층적 지위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정당하게 얻은 결과이며 이를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보는 을의 관점은 기능론, 계층적 지위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병의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갑	을	병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선지 분석〉

- ①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② **기능론은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 ③ 사회 현상을 갈등과 대립의 측면에서만 파악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④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뿐이다.
- ⑤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논리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기능론뿐이다.

14 25학년도 수능 2번

정답 : ㄷ, ㄹ

필자는 사회 체계 안에서 개인들에게 할당되는 분화된 역할 구조가 있고, 개인은 이 역할 구조 속에서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을 수행한다고 본다. 이렇게 개인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공유된 기대에 부응하여 다른 부분과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을 함에 따라 사회라는 완전체가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필자의 관점은 사회가 유기체처럼 다양한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며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사회 유기체설을 전제로 하고, 사회 규범이나 사회 제도 등이 수행하는 역할은 전체 사회의 통합과 존속,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는 기능론에 해당한다.

※ ‘상호 작용’이라는 용어를 통해 학생들이 필자의 관점을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 제시문입니다. 발체독을 통해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쓰기 보다는 제시문을 읽으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각 관점의 내용과 연결해 전체적으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잡으시길 권합니다.

〈선지 분석〉

- ㄱ.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ㄴ. 개인 행위자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ㄷ. **기능론은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ㄹ. **기능론은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본다.**

Part
02

문제 풀이법 파트



01 구분 유형

01 19학년도 수능 4번

정답 : ③

개인의 행동이 개인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강제력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으로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B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개인의 행동은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 규범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뿐이므로 상징적 상호 작용론(B)는 첫 번째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다. 첫 번째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A는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할 갈등론이다. 따라서 C는 기능론이다.

A	B	C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기능론

〈선지 분석〉

- ①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A)이 아니라 기능론(C)이다.
- ② 사회의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B)이 아니라 갈등론(A)이다.
- ③ **기능론(C)은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본다.**
- ④ 사회 제도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갈등론(A)과 기능론(C)이다.
- ⑤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B)뿐이다.

02 21학년도 9월 평가원 13번

정답 : ②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된 사회 집단은 이익 사회이다.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 중 이익 사회에 속하는 사회 집단은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이므로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는 각각 A, C, D 중 하나이다. 따라서 B는 가족이다.

공통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이다.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 중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는 사회 집단은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이므로 첫 번째 질문에 가족(B)과 같은 답을 한 학교는 D이다.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춘 사회 집단은 공식 조직이다.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 중 공식 조직에 속하는 사회 집단은 시민 단체, 학교이므로 세 번째 질문에 가족(B)과 같은 답을 한 사내 동호회는 C, 학교(D)와 같은 답을 한 시민 단체는 A이다.

A	B	C	D
시민 단체	가족	사내 동호회	학교

〈선지 분석〉

- ① 사내 동호회(C)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② **시민 단체(A)는 2차 집단, 가족(B)은 1차 집단이다.**
- ③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회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이다.
시민 단체와 학교 중 자발적 결사체는 시민 단체(A)이다.
- ④ 구성원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인 사회 집단은 1차 집단이다.
가족, 사내 동호회, 학교 중 2차 집단은 학교(D)이다.
- ⑤ A ~ D 중 이익 사회는 시민 단체(A), 사내 동호회(C), 학교(D)이고, 공동 사회는 가족(B)이다.

03 19년 3월 교육청 7번

정답 : ㄱ, ㄴ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따라서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큰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므로 A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따라서 B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가)에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A	B	C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선지 분석〉

- ㄱ. 문화 상대주의(C)가 문화 상대주의(A)에 비해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
- ㄴ. 문화 상대주의(A)가 자문화 중심주의(B)에 비해 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 ㄷ. 문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C)가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B)이다.
- ㄹ. 맹목적으로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A)이다.
자문화 중심주의(B)와 문화 상대주의(C) 모두 해당 질문에 '아니요'라는 같은 대답을 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04 24학년도 9월 평가원 10번

정답 : ③

(가)에는 A와 B가 서로 다른 응답을 하고, B와 C가 서로 같은 응답을 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① 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할 때 질문지법을 활용하고,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을 활용한다.

A가 질문지법이라면 B와 C가 각각 면접법이든 참여 관찰법이든 관계없이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합니까?'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고,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A가 질문지법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②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 면접법과 달리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A가 면접법이라면 B와 C가 각각 질문지법이든 참여 관찰법이든 관계없이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면접법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③ 질문지법, 면접법은 참여 관찰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다.

C가 참여 관찰법이라면 A와 B가 각각 질문지법이든 면접법이든 관계없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입니까?'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고,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C가 참여 관찰법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질문지법은 면접법, 참여 관찰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C가 질문지법이라면 A와 B가 각각 면접법이든 참여 관찰법이든 관계없이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입니까?'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고,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C가 질문지법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질문지법은 면접법, 참여 관찰법과 달리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A가 질문지법이다.

면접법, 참여 관찰법 모두 주로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 활용되므로 B가 면접법이든 참여 관찰법이든 관계없이 주로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한 연구와 활용되지 않는다.

※ B와 C는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가)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까?'가 들어갈 때, B와 C는 모두 질문지법이 될 수 없다.

02 개방형 문제 유형

01 19학년도 수능 15번

정답 : ⑤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중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이므로 A는 사회 서비스이다.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가)에 '예'라고 답할 사회 보장 제도는 B이고, '아니요'라고 답할 사회 보장 제도는 C이다.

〈선지 분석〉

- ①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서비스(A)가 아니라 사회 보험이다.
- ②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대상자의 범위가 더 넓은 것은 사회 보험이므로 이 경우에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보험이다. 공공 부조는 사회 서비스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 ③ C가 사회 보험이면, B는 공공 부조이다.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보험이다. 사회 서비스와 사회 보험의 대상자는 중복될 수 있다. (모든 사회 보장 제도의 대상자는 중복 가능함.)
- ⑤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사회 보험, C는 공공 부조이다.
공공 부조(C)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02 20학년도 9월 평가원 12번

정답 : ④

개인의 행위보다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선지 분석〉

- ①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A)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②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합의를 중요시하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C는 기능론, B는 갈등론이다. 인간을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③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설명하는 관점은 갈등론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C는 갈등론, B는 기능론이다. 집단 간의 대립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④ 사회 제도를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B가 갈등론이라면, (가)에는 기능론이 ‘예’, 갈등론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를 유기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⑤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다. C가 기능론이라면, (가)에는 기능론이 ‘예’, 갈등론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적 갈등을 필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갈등론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03 23학년도 6월 평가원 10번

정답 : ㉔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가 이주해 온 유럽인의 문화로 대체된 것’은 문화 동화의 사례이다. 따라서, A는 문화 동화이다.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은 문화 병존이므로 B가 문화 병존, C는 문화 융합이다.

A	B	C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선지 분석〉

- ① ‘우리나라에서 양력설과 음력설을 모두 지내는 것’은 문화 융합(C)이 아니라 문화 병존(B)의 사례이다.
- ② 문화 동화(A)도 자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 ③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야기하는 것은 문화 동화(A)뿐이다. (가)에는 문화 동화, 문화 융합이 ‘예’, 문화 병존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문화 동화(A), 문화 병존(B), 문화 융합(C) 모두 문화 접변의 결과로 외재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문화 변동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나)에 들어간다면, ㉑과 ㉒ 모두 ‘예’이다.
- ⑤ **문화 융합(C)은 문화 동화(A), 문화 병존(B)과 달리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다)에 들어간다면, ㉓은 ‘아니요’, ㉔은 ‘예’이다.

04 18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정답 : ㉒

(가)에는 A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① A가 공공 부조이면, (가)에는 공공 부조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공공 부조뿐만 아니라 사회 보험도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A가 사회 보험이면, (가)에는 사회 보험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③ A가 사회 서비스이면, (가)에는 사회 서비스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중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공공 부조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와 C는 각각 사회 보험과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고용 보험은 사회 보험에, 기초 연금은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 ⑤ 상담, 재활, 사회 복지 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서비스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와 C는 각각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하나이다.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의 대상자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중복될 수 있다.

05 18학년도 9월 평가원 16번

정답 : ㄱ, ㄷ

(가)에는 A와 B 모두 '예'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A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다)에는 B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ㄱ. 계급 이론과 계층 이론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ㄴ. A가 계층 이론이라면, (나)에는 계층 이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불연속적인 위계화로 파악하는 이론은 계급 이론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ㄷ. A가 계급 이론이라면, (다)에는 계층 이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의 발생 원인을 다원론적 관점에서 보는 이론은 계층 이론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ㄹ. B가 계층 이론이라면, (나)에는 계급 이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은 계층 이론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06 15학년도 수능 12번

정답 : ③

(가)에는 B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A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다)에는 A와 B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① A가 계층론이면 (가)에는 계급론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계층론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② A가 계층론이면 (나)에는 계층론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계층을 일원론적 관점에서 구분하는 이론은 계급론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③ 동일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집단 구성원이 갖는 강한 귀속 의식을 중시하는 이론은 계급론이다.

(나)에는 A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B는 계층론이다.

④ 계급론과 계층론 모두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다. (다)에는 계급론과 계층론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⑤ 사회 불평등을 연속적인 서열로 파악하는 이론은 계층론이므로 첫 번째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계층론이다.

따라서 (나)에는 A인 계급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이동의 개방성이 크다고 보는 이론은 계급론이 아닌 계층론이므로 두 번째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07 17학년도 6월 평가원 5번

정답 : ⑤

(가)에는 B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A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다)에는 A와 B 모두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① A가 진화론이면 (가)에는 순환론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진화론이다.
- ② (다)에는 진화론과 순환론 모두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진화론뿐이다.
- ③ B는 (나)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관점이 들어간다.
사회 변동이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고 보는 관점은 순환론이므로 B는 진화론이다.
- ④ (다)에는 진화론과 순환론 모두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론은 진화론뿐이다.
- ⑤ (가)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는가?”이면, A는 순환론이다.
순환론은 사회 변동 과정에서 문명이 퇴보할 수 있다고 본다.

08 19학년도 6월 평가원 6번

정답 : ㄴ, ㄹ

(가)에는 A와 B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에는 C만의 특징이, (다)에는 A만의 특징이, (라)에는 B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ㄱ.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은 양적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실험법과 질문지법이므로 A가 질문지법이라면, B는 실험법이다. 따라서 C는 면접법이다.
이 상황에서 (나)에는 면접법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면접법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유연성이나 융통성을 발휘하기 쉽다.
- ㄴ. 인위적으로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기에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이므로 C가 면접법이라면, B는 질문지법이다. 이 상황에서 (라)에는 질문지법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질문지법은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 ㄷ. 연구 대상자와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과 면접법이므로 (가)에 해당 문장이 들어가면, (나)에는 실험법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실험법을 통해서만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
- ㄹ.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이므로 (나)에 해당 문장이 들어가면, (가)에는 실험법과 질문지법의 공통적인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 용이하다.

09 19학년도 9월 평가원 3번

정답 : L, R

(가)에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두 가지 관점에서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고, (다)에는 (가)에서 '아니요'라고 답할 하나의 관점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ㄱ. 인간을 능동적인 주체로 전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뿐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L.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상황 정의에 기초한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뿐이다.

A는 '아니요'라고 답했으므로, B나 C 중 하나는 '예'라고 답하고, 하나는 '아니요'라고 답해야 한다.

따라서 ㉠과 ㉡의 답변은 서로 다르다.

ㄴ.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체계를 중시하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하나의 관점만 '예'라고 답해야 하는 (다)에 들어갈 수 없다.

R. A, B가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 중 하나라면, C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므로 B가 갈등론일 때,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10 19학년도 수능 16번

정답 : ㉤

(가)에는 B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A, B, C 모두 '예'라고 답할 질문이, (다)에는 (가)에서 '아니요'라고 답한 A, C가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이다. A~C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본질 의지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은 공동 사회이다.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이익 사회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결성한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이다.

A~C 모두 자발적 결사체이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 A와 C가 각각 시민 단체와 친목 집단 중 하나라면, B는 이익 집단이다.

자발적 결사체는 모두 사회 다원화에 기여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과업 지향적인 집단은 공식 조직이다.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것은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이므로 B가 친목 집단이라면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11 20학년도 수능 14번

정답 : ㄷ, ㄹ

(가)에는 A와 B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C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다)에는 A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ㄱ. 국수주의적 태도로 인해 문화 다양성을 거부하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뿐이다.
(가)에는 두 가지 태도에서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A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ㄴ. B가 자문화 중심주의, C가 문화 상대주의라면, (다)에는 문화 상대주의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타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 ㄷ.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이므로 (가)에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가면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각각 A와 B 중 하나이고, C는 문화 상대주의다. 개별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므로, 두 번째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ㄹ.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므로 (나)에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가면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자기 문화의 가치만을 중시하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므로, 두 번째 질문이 (다)에 들어가면 A는 자문화 중심주의다. 따라서, B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12 22학년도 9월 평가원 3번

정답 : ⑤

A	B	C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가)에는 질문지법만 '예'라고 답할 질문이, (나)에는 참여 관찰법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다)에는 질문지법과 면접법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①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중 시간과 비용에 대한 효율성은 질문지법(A)이 가장 높다.
참여 관찰법(C)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 ② 질문지법(A)도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 관찰법 모두 경험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는 방법은 실험법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질문지법(A)과 면접법(B)은 참여 관찰법(C)과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Part
03

표 파트



Chapter 01 비율과 변화율

comment

- ①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큰 경우
- ② 분자의 감소율보다 분모의 감소율이 큰 경우

01 17학년도 수능 18번

정답 : ④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와 2013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공부했듯이 2012년에 15~64세 기혼 여성 수가 전년 대비 2% 증가한 후, 2013년에 2012년에 비해 2% 감소했다면 결론적으로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를 10,000명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2012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10,200명이다. 또한, 2013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10,200 - 204명으로 이는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인 10,000명보다 작아진다.

〈선지 분석〉

- ① 2013년에 15~64세 기혼 여성의 수는 2012년 대비 2% 감소했으므로 15~64세 기혼 여성의 수는 2012년이 2013년보다 많다.
- ② 2011년과 2015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같고,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가 2015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보다 많으므로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1년이 2015년보다 많다.
- ③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47 → 46 → 45 → 40 → 37(%)로 줄어들고 있다.
- ④ 2011년과 2015년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같고,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가 2014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보다 많으므로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1년이 2014년보다 많다.
- 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해의 후보는 2012년과 2015년이 있다. 2012년은 15~64세 기혼 여성 수가 가장 많은 해이고, 2015년은 경력 단절의 사유로 육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를 10,000명으로 가정하면 2012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10,200명, 2015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9,996명이다. 10,200명의 26%보다는 9,996명의 32%가 크므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5년이다.

※ 시험장에서는 10,200명의 26%와 9,996명의 32%에 해당하는 수치를 각각 계산하여 구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9,996명의 32%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략적인 수치를 계산하면 10,200명의 26%는 2,600명보다 조금 많을 것이고, 9,996명의 32%는 3,200명보다 조금 적을 것이다.

02 19년 4월 교육청 15번

정답 : ②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이 가장 많고, 2018년이 두 번째로 많고, 2017년이 가장 적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2017년의 전년 대비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변화율이 -2.0% 이었다가 2018년의 전년 대비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변화율이 2.0% 가 되면 2018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보다 적다. 2016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1,000명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보길 바란다.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에 가장 많은데, 전체 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은 2016년에 가장 낮으므로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선지 분석〉

①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이 2018년보다 많다.

②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가장 많으므로 2017년의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③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다문화 가정 학생 수와 고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과 2017년만 비교하면 된다. 2016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1,000명, 2017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980명으로 가정하자. 이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2016년에는 1,000명의 4.9% 이고, 2017년에는 980명의 5.0% 이다. 전자는 49명이고, 후자도 49명이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과 2017년에 동일하다.

※ 980명의 5% 를 계산할 때, 980명의 10% 가 98명이고 5% 는 10% 의 절반이라는 것만 알면 굳이 식을 써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④ 2017년 초등학교에 있는 79.1% 라는 수치는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다. 2017년에 전체 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1.8% 인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전체 초등학생 수의 과반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⑤ 2016년에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중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6.8% 이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9% 이다. 16.8 은 4.9 의 4배(19.6)보다 작은 수치이므로 2016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4배보다 작다.

Chapter 02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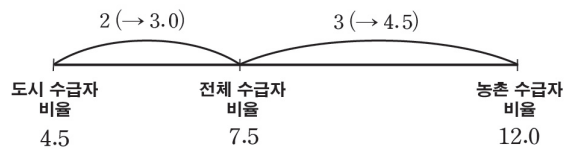
01 정답 : $x = 12\%$, $y = 13\%$

도시 인구나 농촌 인구의 비가 3:2이므로 전체 인구의 수급자 비율은 도시 인구의 수급자 비율에 더 가까이 있다. 전체 인구의 수급자 비율과 농촌 인구의 수급자 비율 간의 거리는 전체 인구의 수급자 비율과 도시 인구의 수급자 비율 간의 거리의 1.5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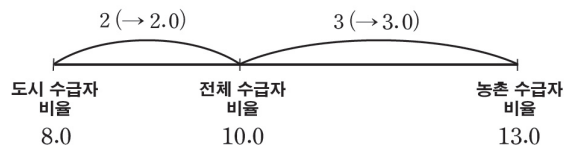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3%p만큼 많으므로, 농촌 인구보다는 4.5%p만큼 적다. 따라서 x 는 12%이다.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2%p만큼 많으므로, 농촌 인구보다는 3%p만큼 적다. 따라서 y 는 13%이다.

(가) 제도



(나) 제도



02 정답 : A 지역의 인구 : 2,000명,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 : 68명

B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가 37명이고, 수급자 비율은 7.4%이므로 B 지역의 인구는 500명이다.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갑국보다 3.2%p만큼 많고, A 지역이 갑국보다 0.8%p만큼 적으므로 A 지역의 인구는 B 지역의 4배이다. 따라서 A 지역의 인구는 2,000명이다.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3.4%이므로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는 68명이다.

Chapter 03 인구 부양비

01 20년 10월 교육청 18번

정답 : ④

갑국의 총인구 중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표로 배치하고,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로 변환한 후 선지 판단을 하도록 하자.

(단위 :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65세 이상 인구	10	20	30
15~64세 인구	70	60	60
0~14세 인구	20	20	10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유소년 부양비	$2/7 \times 100$	$2/6 \times 100$	$1/6 \times 100$
노년 부양비	$1/7 \times 100$	$2/6 \times 100$	$3/6 \times 100$
노령화 지수	$1/2 \times 100$	1×100	3×100

〈선지 판단〉

- ① 2010년의 노령화 지수는 1990년의 6배이다.
- ② 유소년 부양비는 1990년이 2000년보다 작다.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은 것이 더 큰 수이다.
- ③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이 2000년에는 $4/6 \times 100$ 이고, 2010년에도 $4/6 \times 100$ 이다.
- ④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비교하려면 노년 부양비를 확인하면 된다. 노년 부양비는 2010년이 1990년보다 크므로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보다 2010년이 많다.
- ⑤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모두 2000년 대비 2010년에 상승하였다.

02 17년 3월 교육청 16번

정답 : ㄴ, ㄹ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표로 배치하고,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로 변환한 후 선지 판단을 하도록 하자.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보고 직관적으로 선지를 판단하면 된다.

(단위 : %)

구분	A국		B국		C국	
	1980년	2015년	1980년	2015년	1980년	2015년
65세 이상 인구	16	26	6	15	11	38
15~64세 인구	68	58	65	65	73	53
0~14세 인구	16	16	29	20	16	9

구분	A국		B국		C국	
	1980년	2015년	1980년	2015년	1980년	2015년
유소년 부양비	$16/68 \times 100$	$16/58 \times 100$	$29/65 \times 100$	$20/65 \times 100$	$16/73 \times 100$	$9/53 \times 100$
노년 부양비	$16/68 \times 100$	$26/58 \times 100$	$6/65 \times 100$	$15/65 \times 100$	$11/73 \times 100$	$38/53 \times 100$
노령화 지수	1×100	$26/16 \times 100$	$6/29 \times 100$	$15/20 \times 100$	$11/16 \times 100$	$38/9 \times 100$

〈선지 분석〉

ㄱ. 1980년에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큰 국가는 A국이고, 2015년에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큰 국가는 C국이다. 따라서 1980년과 2015년에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큰 국가는 서로 다르다.

※ 1980년 C국의 노년 부양비인 $11/73 \times 100$ 은 $1/6 \times 100$ 보다 작고,
A국의 노년 부양비인 $16/68 \times 100$ 은 $1/6 \times 100$ 보다 크므로 1980년에는 A국의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크다. 2015년에는 C국의 노년 부양비만 $1/2 \times 100$ 보다 크므로 2015년에는 C국의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크다. 이렇게 가까운 수를 기준으로 수를 비교하는 것이 편리하다.

ㄴ.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노령화 지수이다.

2015년의 노령화 지수는 C국이 가장 높다.

ㄷ. 1980년 대비 2015년에 A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증가하였고, B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였다.

ㄹ. 1980년 대비 2015년에 A~C국 모두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였다.

A국과 C국의 경우, 1980년 대비 2015년에 분모는 감소하였고, 분자는 증가하였으므로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03 15년 10월 교육청 14번

정답 : ⑤

별다른 조건이 없고,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모두 15~64세 인구가 기준이므로 1990년의 15~64세 인구를 100a명, 2000년의 15~64세 인구를 100b명, 2010년의 15~64세 인구를 100c명으로 두고 문제를 풀자.

(단위 : 명)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65세 이상 인구	10a	12b	20c
15~64세 인구	100a	100b	100c
0~14세 인구	40a	33b	20c
총인구	150a	145b	140c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유소년 부양비	$2/5 \times 100$	$33/100 \times 100$	$1/5 \times 100$
노년 부양비	$1/10 \times 100$	$3/25 \times 100$	$1/5 \times 100$
노령화 지수	$1/4 \times 100$	$12/33 \times 100$	1×100

〈선지 분석〉

- ① 1990년에 총인구 중 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150) \times 100\%$ 이다.
- ② 2000년에 0~14세 인구 100명을 부양하는 데 15~64세 인구가 33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0~14세 인구 33명을 부양하는 데 15~64세 인구가 100명이 필요한 것이다.
- ③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노령화 지수를 통해 알 수 있다.
노령화 지수는 2010년이 1990년보다 높으므로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이 1990년보다 높다.
- ④ 총인구 중 15~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100/140$)이 2000년($100/145$)보다 높다.
- 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은 $10/150$ 이고, 2010년은 $20/140$ 이다. $10/150$ 의 2배인 $20/150$ 은 $20/140$ 보다 작으므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이 1990년의 2배보다 크다.

04 22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⑤

A 지역의 노령화 지수가 2000년에는 60이므로 2000년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25%이다. 따라서, 2000년의 부양 인구 비율은 60%이다. A 지역의 노령화 지수가 2020년에는 125이므로 2020년의 노인 인구 비율은 25%이다. 따라서, 2020년의 부양 인구 비율은 55%이다. 2000년에 비해 2020년 A 지역 총인구는 20% 증가했으므로 2000년의 총인구를 1,000명이라고 하면, 2020년의 총인구는 1,200명이다.

2000년의 총인구를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0년과 2020년의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명)

구분	2000년	2020년
유소년 인구	250	240(=200×1.2)
부양 인구	600	660(=550×1.2)
노인 인구	150	300(=250×1.2)
총인구	1,000	1,200

〈선지 분석〉

- ① 2020년에 노인 인구(300)는 유소년 인구(240)의 2배 미만이다.
- ② 부양 인구는 2000년(600)에 비해 2020년(660)에 증가하였다.
- ③ 2000년 유소년 부양비 $[(250/600) \times 100]$ 와 2020년 노인 부양비 $[(300/660) \times 100]$ 은 다르다.
약분하면 전자는 $(5/12 \times 100)$, 후자는 $(5/11 \times 100)$ 이다.
- ④ 2000년에 비해 2020년의 노인 인구는 $100\%[(300-150)/150]$ 증가하였고, 유소년 인구는 $4\%[(250-240)/250]$ 감소하였다.
- ⑤ 유소년 부양비는 2000년 $[(250/600) \times 100]$ 에 비해 2020년 $[(240/660) \times 100]$ 에 감소하였다.
노인 부양비는 2000년 $[(150/600) \times 100]$ 에 비해 2020년 $[(300/660) \times 100]$ 에 증가하였다.
총부양비는 2000년 $[(400/600) \times 100]$ 에 비해 2020년 $[(540/660) \times 100]$ 에 증가하였다.

05 22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정답 : ④

갑국에서 t 년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0%이고,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50명이므로 0~14세 인구의 비율은 20%이다. 따라서, t 년에 15~64세 인구의 비율은 70%이다. $t+60$ 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이고,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0명이므로 0~14세 인구의 비율은 10%이다. 따라서, $t+60$ 년에 15~64세 인구의 비율은 70%이다.

을국에서 t 년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0%이고,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40명이므로 0~14세 인구의 비율은 25%이다. 따라서, t 년에 15~64세 인구의 비율은 65%이다. $t+60$ 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30%이고,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300명이므로 0~14세 인구의 비율은 10%이다. 따라서, $t+60$ 년에 15~64세 인구의 비율은 60%이다.

갑국 전체 인구와 을국 전체 인구는 각각 t 년 대비 $t+60$ 년에 10% 증가했으므로 t 년의 갑국 전체 인구를 1,000a명, 을국 전체 인구를 1,000b명이라고 하면 갑국과 을국의 t 년과 $t+60$ 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는 각각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갑국		을국	
	t 년	$t+60$ 년	t 년	$t+60$ 년
65세 이상 인구	100a	220a	100b	330b
15~64세 인구	700a	770a	650b	660b
0~14세 인구	200a	110a	250b	110b
총인구	1,000a	1,100a	1,000b	1,100b

〈선지 분석〉

- ① t 년의 노인 부양비는 갑국 $[(100/700) \times 100]$ 이 을국 $[(100/650) \times 100]$ 보다 작다.
- ② $t+60$ 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 $[(110/770) \times 100]$ 이 을국 $[(110/660) \times 100]$ 보다 작다.
- ③ 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t 년(100a) 대비 $t+60$ 년(220a)에 2.2배가 되었다.
- ④ t 년 대비 $t+60$ 년에 15~64세 인구는 갑국(700a→770a)과 을국(650b→660b) 모두 증가하였다.
- ⑤ t 년 대비 $t+60$ 년에 0~14세 인구는 갑국(200a→110a)과 을국(250b→110b) 모두 감소하였다.

06 22학년도 수능 20번

정답 : ③

갑국에서 $t+100$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1/2$ 이고, t 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이므로 t 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a\%$ 라고 하면, $t+100$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a\%$ 이고, t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a\%$ 이다.

노인 인구,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합은 100% 이고, t 년에 총부양비가 100이라는 것은 부양 인구와 (유소년 인구+노인 인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양 인구 비율은 50% 이고, a 는 10이다. 갑국에서 $t+100$ 년에 총부양비는 150이므로 $t+100$ 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다. $t+100$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므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다.

(단위 : %)

연령대별 인구	t 년	$t+100$ 년
노인 인구	10	40
부양 인구	50	40
유소년 인구	40	20

t 년과 $t+100$ 년의 부양 인구는 동일하므로 t 년과 $t+100$ 년의 부양 인구를 200명이라고 하면, 시기·연령대별 인구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연령대별 인구	t 년	$t+100$ 년
노인 인구	40	200
부양 인구	200	200
유소년 인구	160	100

〈선지 분석〉

- ① 전체 인구는 t 년 대비 $t+100$ 년에 $25\%[\{(500-400)/400\} \times 100\%]$ 증가하였다.
- ② 유소년 부양비는 t 년 대비 $t+100$ 년에 $37.5\%[\{(80-50)/80\} \times 100\%]$ 감소하였다.
- ③ 노령화 지수는 $t+100$ 년 $[2 \times 100]$ 이 t 년 $[(1/4) \times 100]$ 의 8배이다.
- ④ 노년 부양비는 $t+100$ 년 $[1 \times 100]$ 이 t 년 $[(1/5) \times 100]$ 의 5배이다.
- ⑤ t 년의 유소년 인구(160)와 $t+100$ 년의 노인 인구(200)는 서로 다르다.

07 23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 : ㄴ, ㄹ

갑국의 부양 인구는 t 년에 비해 $t+100$ 년에 절반으로 감소했으나, 두 시기의 총부양비가 60으로 동일하다는 말을 통해 총인구도 t 년에 비해 $t+100$ 년에 절반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 년과 $t+100$ 년에 갑국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62.5[(100/100+60) \times 100]\%$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국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노년 인구)의 비율은 t 년과 $t+100$ 년 모두 $37.5(100-62.5)\%$ 이며, 갑국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t 년이 12.5%, $t+100$ 년이 25%이다. 이를 통해 t 년과 $t+100$ 년의 노년 인구는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 년에 비해 $t+100$ 년의 유소년 인구는 $1/4$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t 년의 부양 인구를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두 시기의 인구 분포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구분	t 년	$t+100$ 년
노년 인구	200	200
부양 인구	1,000	500
유소년 인구	400	100
총인구	1,600	800

〈선지 분석〉

ㄱ. 유소년 인구는 t 년(400) 대비 $t+100$ 년(100)에 $75\{[(400-100)/400] \times 100\}\%$ 감소하였다.

ㄴ. t 년의 노년 인구(200)와 $t+100$ 년의 노년 인구(200)는 동일하다.

ㄷ.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t 년(3/8)과 $t+100$ 년(3/8)에서 동일하다. 이는 두 시기의 총부양비가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ㄹ. 유소년 부양비는 t 년에 $40[(4/10) \times 100]$, $t+100$ 년에 $20[(2/10) \times 100]$ 이고,

노년 부양비는 t 년에 $20[(1/5) \times 100]$, $t+100$ 년에 $40[(2/5) \times 100]$ 이다.

t 년에 비해 $t+100$ 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노년 부양비는 2배가 되었으므로 해당 문장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8 23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④

t년에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과 같다. t년에 유소년 인구는 750만 명, 노년 인구는 250만 명이므로 부양 인구는 1,000만 명이다.

A의 경우 유소년 인구는 900만 명($750\text{만 명} \times 1.2$), 노년 인구는 300만 명($250\text{만 명} \times 1.2$)이다. 이때,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부양 인구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과 같다. 따라서, A의 경우 부양 인구는 1,200만 명이다.

B의 경우 유소년 인구는 600만 명($750\text{만 명} \times 0.8$), 노년 인구는 600만 명($250\text{만 명} \times 2.4$)이다. 이때,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부양 인구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과 같다. 따라서, B의 경우 부양 인구는 1,200만 명이다.

※ 20% 증가는 기존 수치의 1.2배가, 20% 감소는 기존 수치의 0.8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현재(t년)	t+100년의 시나리오 예측 결과	
		A	B
유소년 인구 (0~14세 인구)	750만 명	900만 명	600만 명
부양 인구 (15~64세 인구)	1,000만 명	1,200만 명	1,200만 명
노년 인구 (65세 이상 인구)	250만 명	300만 명	600만 명
전체 인구	2,000만 명	2,400만 명	2,400만 명

〈선지 분석〉

- ① 노년 부양비는 A가 $25[(300/1,200) \times 100]$, 현재도 $25[(250/1,000) \times 100]$ 이므로 둘은 같다.
 ② 총부양비는 B가 $100[(1,200/1,200) \times 100]$, 현재도 $100[(1,000/1,000) \times 100]$ 이므로 둘은 같다.

※ t년과 t+100년의 가정 모두 부양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총부양비는 100으로 같다.

- ③ 유소년 부양비는 A가 $75[(900/1,200) \times 100]$, B가 $50[(600/1,200) \times 100]$ 이므로 A가 B의 1.5배이다.
 ④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B $[(6/24) \times 100\%]$ 가 A $[(3/24) \times 100\%]$ 의 2배이다.
 ⑤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B $[(6/24) \times 100\%]$ 가 A $[(3/24) \times 100\%]$ 보다 높고,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A $[(9/24) \times 100\%]$ 가 B $[(6/24) \times 100\%]$ 보다 높으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A보다 B에서 더 부각된다.

09 23학년도 수능 20번

정답 : ③

t년 대비 t+50년에 전체 인구는 25% 증가했으므로 t년 전체 인구를 400a명이라고 가정하면, t+50년의 전체 인구는 500a명이다. t+5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28%이므로 140a명이고, t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는 12.5% 감소했으므로 t년에 유소년 인구는 160a($= 140a \times 8/7$)명이다. 이를 통해 t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40%임을 알 수 있다.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은 20%이므로 부양 인구 비율은 40%이다. 따라서, t년에 노년 부양비는 50($= 20/40 \times 100$)이다. t년 대비 t+50년에 노년 부양비는 150% 증가했으므로 t+50년에 노년 부양비는 125이다. t+50년에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과 부양 인구 비율의 합은 72%이므로 t+50년에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40($= 72 \times (5/4+5)$)%이고, 부양 인구 비율은 32($= 72 \times (4/4+5)$)%이다.

구분	t년	t+50년
노인 인구	80a명 (20%)	200a명 (40%)
부양 인구	160a명 (40%)	160a명 (32%)
유소년 인구	160a명 (40%)	140a명 (28%)
전체 인구	400a명 (100%)	500a명 (100%)

〈선지 분석〉

- ① t년의 유소년 인구(160a명)는 t+50년의 노년 인구(200a명)보다 적다.
- ② t년 대비 t+50년에 전체 인구 증가율은 $25[= \{(500-400)/400\} \times 100]\%$ 고, 피부양 인구 증가율은 $41.66\cdots[= \{(340-240)/240\} \times 100]\%$ 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50년에 전체 인구 증가율이 피부양 인구 증가율보다 작다.
※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이 t+50년보다 크므로 피부양 인구 비율은 t+50년이 t년보다 크다. 때문에 t년 대비 t+50년에 피부양 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
- ③ t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은 $12.5[= \{(160-140)/160\} \times 100]\%$ 이고,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도 $12.5[= \{(100-87.5)/100\} \times 100]\%$ 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과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은 동일하다.
※ 유소년 부양비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부양 인구이다. 그런데, t년과 t+50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수가 동일하므로 t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과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은 동일하다.
- ④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40%)이 t+50년(32%)보다 크다.
- ⑤ 부양 인구는 t년(160a명)과 t+50년(160a명)에 동일하다.

10 24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②

갑국의 $t+50$ 년과 $t+100$ 년의 총인구가 각각 t 년 총인구의 2배와 1.5배이므로 t 년의 총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t+50$ 년과 $t+100$ 년의 총인구는 각각 200명과 150명이다. 갑국 총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 년과 $t+50$ 년이 각각 40%, $t+100$ 년이 30%이므로 부양 인구는 t 년 40명, $t+50$ 년 80명, $t+100$ 년 45명이다.

노년 부양비는 $t+50$ 년이 75, t 년이 25이므로 노년 인구는 t 년 $10(=40 \times 0.25)$ 명, $t+50$ 년 $60(=80 \times 0.75)$ 명이다. 따라서, 유소년 인구는 t 년 50명, $t+50$ 년 60명이다. $t+100$ 년의 노령화 지수는 250이므로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5배이다. $t+100$ 년에 노년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합은 105명이므로 노년 인구는 75명, 유소년 인구는 30명이다.

(단위 : 명)

	t 년	$t+50$ 년	$t+100$ 년
노년 인구	10	60	75
부양 인구	40	80	45
유소년 인구	50	60	30
총인구	100	200	150

〈선지 분석〉

① $t+50$ 년의 총부양비[$150(=120/80 \times 100)$]는 t 년의 총부양비[$150(=60/40 \times 100)$]와 같다.

※ $t+50$ 년과 t 년의 총인구 중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으므로 총부양비는 같을 수밖에 없다.

② $t+50$ 년의 노령화 지수[$100(=60/60 \times 100)$]는 t 년[$20(=10/50 \times 100)$]의 5배이다.

③ $t+50$ 년의 부양 인구(80명)는 t 년(40명)에 비해 $100[(80-40)/40]\%$ 증가하였다.

④ 유소년 인구는 t 년(50명), $t+50$ 년(60명), $t+100$ 년(30명) 중 $t+100$ 년에 가장 적다.

⑤ 유소년 부양비는 t 년[$125(=50/40 \times 100)$], $t+50$ 년[$75(=60/80 \times 100)$], $t+100$ 년[$66.66\cdots(=30/45 \times 100)$] 중 t 년이 가장 크고, $t+100$ 년이 가장 작다.

11 24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⑤

전체 인구는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A+B+C$ 는 100%이다. 갑국에 t 년의 경우 $B+C/A=2/3$ 이므로 $B+C$ 의 비율이 40%, A 의 비율이 60%이다. C 의 비율이 B 의 비율의 3배이므로 B 의 비율은 10%, C 의 비율은 30%이다. 갑국에서 t 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므로 A 는 부양 인구, C 는 유소년 인구이다. 따라서 B 는 노년 인구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면 갑국에 $t+50$ 년의 경우 $B+C$ 의 비율이 50%, A 의 비율이 50%이고, C 의 비율이 B 의 비율의 $3/2$ 배이므로 B 의 비율은 20%, C 의 비율은 30%이다.

을국에 t년의 경우 B+C의 비율이 35%, A의 비율이 65%이고, C의 비율이 B의 비율의 6배이므로 B의 비율은 5%, C의 비율은 30%이다. t+50년의 경우 B+C의 비율이 50%, A의 비율이 50%이고, C의 비율이 B의 비율의 3/2배이므로 B의 비율은 20%, C의 비율은 30%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에 t년과 t+50년의 인구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B)	10	20	5	20
부양 인구(A)	60	50	65	50
유소년 인구(C)	30	30	30	30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변하지 않았는데,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했으므로 t년 대비 t+50년에 갑국 전체 인구는 10%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t년 대비 t+50년에 을국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변하지 않았는데,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했으므로 t년 대비 t+50년에 을국 전체 인구는 20%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는 단서까지 종합해서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를 각각 1,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갑국과 을국에서 t년과 t+50년의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B)	100	180	50	160
부양 인구(A)	600	450	650	400
유소년 인구(C)	300	270	300	240
전체 인구	1,000	900	1,000	800

〈선지 분석〉

- ① t년에 노년 부양비는 갑국 $\{(1/6) \times 100\}$ 이 을국 $\{(1/13) \times 100\}$ 의 2배가 아니다.
- ② t+50년에 유소년 인구는 갑국(270)이 을국(240)보다 많다.
- ③ t+5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을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이다. 따라서 t+50년에 갑국과 을국 모두 초고령 사회이다.
- ④ 을국의 경우 t년에서 t+50년 사이에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한 것을 보았을 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갑국의 경우도 t년에서 t+50년 사이에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한 것을 보았을 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⑤ **t년에 부양 인구는 을국(650)이 갑국(600)보다 많고, t+50년에 부양 인구는 갑국(450)이 을국(400)보다 많다.**

12 24학년도 수능 20번

정답 : ④

갑국에서 t 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이 50%이고, 노령화 지수를 보았을 때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4배이므로 유소년 인구 비율은 40%, 노년 인구 비율은 10%이다. 갑국에서 $t+50$ 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이 60%이고, 노령화 지수를 보았을 때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와 같으므로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 노년 인구 비율은 20%이다.

을국에서 t 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이 50%이고, 노령화 지수를 보았을 때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1.5배이므로 노년 인구 비율은 30%,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이다. 을국에서 $t+50$ 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이 55%이고, 노령화 지수를 보았을 때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이므로 노년 인구 비율은 30%, 유소년 인구 비율은 15%이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갑국과 을국의 t 년과 $t+50$ 년의 인구 구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

	갑국		을국	
	t 년	$t+50$ 년	t 년	$t+50$ 년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10	20	30	30
15~64세 인구	50	60	50	55
유소년(0~14세 인구)	40	20	20	15

t 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고, t 년 대비 $t+50$ 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10% 감소하였으며, 을국은 전체 인구는 20% 감소하였다는 단서를 통해 t 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를 1,000명이라고 할 때, 갑국과 을국의 t 년과 $t+50$ 년의 인구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갑국		을국	
	t 년	$t+50$ 년	t 년	$t+50$ 년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100	180	300	240
15~64세 인구	500	540	500	440
유소년(0~14세 인구)	400	180	200	120
전체 인구	1,000	900	1,000	800

〈선지 분석〉

- ① 합계 출산율을 보았을 때, t 년과 $t+50$ 년 모두 저출산 현상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다.
- ② t 년에 갑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므로 초고령 사회가 아니다.
- ③ t 년 대비 $t+50$ 년의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을국 $[33.33\cdots\{=(200-150)/150\}\%]$ 이 갑국 $[300\{=(100-25)/25\}\%]$ 보다 작다.
- ④ **t 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200)는 $t+50$ 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180)보다 많다.**
- ⑤ t 년에 노년 인구는 을국(300)이 갑국(100)의 3배이고,
 $t+50$ 년에 노년 인구는 을국(240)이 갑국(180)의 1.33...배이다.

13 25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 : ㄴ, ㄹ

갑국의 $t+50$ 년의 인구는 t 년의 2배이고, 을국에서 $t+50$ 년의 인구는 t 년의 3배인데, t 년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같으므로 갑국의 t 년 전체 인구를 100a명으로 가정하면, 갑국의 $t+50$ 년 전체 인구는 200a명, 을국의 t 년과 $t+50$ 년의 전체 인구는 각각 100a명, 300a명이다.

갑국의 t 년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10%, 노령화 지수는 20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50(=10 \times 100/20)\%$ 이다. 따라서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은 40%이다. 갑국의 $t+50$ 년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은 35%, 노령화 지수는 140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25(=35 \times 100/140)\%$ 이다. 따라서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은 40%이다.

을국의 t 년 총부양비는 100($\rightarrow$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 = 1 $\rightarrow$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 = 부양 인구)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은 50%이다.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이 10%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율은 40%이다. 을국의 $t+50$ 년 총부양비는 100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 비율은 50%이다. 노령화 지수는 100($\rightarrow$ 노년 인구 / 유소년 인구 = 1)이므로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과 유소년 인구 비율은 같다. 따라서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과 유소년 인구 비율은 각각 25%이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 전체 인구를 100a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가별, 시기별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	10a(= 100a×10%)	70a(= 200a×35%)	10a(= 100a×10%)	75a(= 300a×25%)
부양 인구	40a(= 100a×40%)	80a(= 200a×40%)	50a(= 100a×50%)	150a(= 300a×50%)
유소년 인구	50a(= 100a×50%)	50a(= 200a×25%)	40a(= 100a×40%)	75a(= 300a×25%)
전체 인구	100a	200a	100a	300a

〈선지 분석〉

ㄱ. ㉠은 25, ㉡은 $25(=10a/40a \times 100)$, ㉢은 $150(=60a/40a \times 100)$, ㉣은 $150(=120a/80a \times 100)$ 이다. 따라서 ㉠과 ㉡은 같고, ㉢과 ㉣은 같다.

ㄴ. 을국의 $t+50$ 년 부양 인구(150a명)는 갑국의 t 년 유소년 인구(50a명)의 3배이다.

ㄷ. t 년 노년 부양비의 경우 갑국 $25(=10a/40a \times 100)$, 을국 $20(=10a/50a \times 100)$ 으로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t+50$ 년 유소년 부양비의 경우 갑국 $62.5(=50a/80a \times 100)$, 을국 $50(=75a/150a \times 100)$ 으로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ㄹ. 갑국(10a $\rightarrow$ 70a)과 을국(10a $\rightarrow$ 75a) 모두 t 년 대비 $t+50$ 년에 노년 인구가 증가하였으므로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커졌다.

14 25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②

〈조건 1〉에 따르면 갑국 t 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50%이고 노년 인구의 3배이므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을 $x\%$ 라고 가정했을 때, $(3x+6x+x)\% = 100\%$ 이다. 따라서 x 는 10이다.

〈조건 2〉와 〈조건 3〉에 따르면 t 년 $\rightarrow t+30$ 년 $\rightarrow t+50$ 년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A 시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감소하였고,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변화가 없으므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의 감소치만큼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B 시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과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이 모두 감소하였으므로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의 증가치와 부양 인구 비율의 증가치의 합만큼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한 것을 통해 $t+30$ 년 대비 $t+50$ 년으로 인구 변화 양상을 예측했을 때 유소년 인구의 감소율보다는 부양 인구의 감소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가파르게).

이를 바탕으로 갑국 t 년의 전체 인구를 $100a$ 명으로 가정했을 때 시기별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t 년	$t+30$ 년	$t+50$ 년
노년 인구	$10a$	t 년보다 증가	$t+30$ 년보다 증가
부양 인구	$60a$	$60a$	$t+30$ 년보다 감소
유소년 인구	$30a$	t 년보다 감소	$t+30$ 년보다 감소
전체 인구	$100a$	$100a$	$100a$

〈선지 분석〉

① A 시기에는 피부양 인구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t 년과 $t+30$ 년에 $40a$ 명으로 동일).

※ 전체 인구는 부양 인구와 피부양 인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의 변화가 없음을 통해서도 해당 선지가 틀렸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② B 시기에는 1) $t+30$ 년에 부양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은 점, 2) $t+30$ 년 대비 $t+50$ 년에 유소년 인구의 감소율보다 부양 인구의 감소율이 높은 점을 통해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반드시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 2번이 충족되더라도, $t+30$ 년에 부양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적다면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임을 확신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③ 〈조건 4〉에 따르면, 세대 간 갈등은 노년 부양비에 비례한다. B 시기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노년 인구 비율은 증가하므로 노년 부양비는 $t+30$ 년보다 $t+50$ 년이 더 크다. 이를 보았을 때 세대 간 갈등이 A 시기보다 B 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

④ t 년의 총부양비와 $t+30$ 년의 총부양비는 $(40/60) \times 100$ 으로 같다.

※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의 변화가 없음을 통해서도 바로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⑤ A 시기와 B 시기에서 부양 인구는 계속 증가하므로 $t+50$ 년의 노년 인구는 t 년보다 많고 $t+30$ 년보다도 많다.

15 25학년도 수능 20번

정답 : ③

갑국 t 년의 부양 인구(15~64세 인구)는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의 7배이며, 노령화 지수는 50이므로 갑국 t 년의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x\%$ 라고 하면,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x\%$,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x\%$ 이다. 따라서 갑국 t 년의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A 기간과 B 기간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으므로 갑국 t 년, $t+30$ 년, $t+50$ 년의 전체 인구를 모두 100a명으로 둘 수 있다. t 년의 노년 인구는 10a명, A 기간 동안 노년 인구 증가율은 100%이므로 $t+30$ 년의 노년 인구는 20a명이다. B 기간 동안 노년 인구 증가율이 50%이므로 $t+50$ 년의 노년 인구는 30a명이다.

t 년의 노령화 지수는 50, A 기간 동안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60%이므로 $t+30$ 년의 노령화 지수는 80이다. 따라서 $t+30$ 년의 유소년 인구는 25a명이고, 그로 인해 부양 인구는 55a명이다. B 기간 동안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50%이므로 $t+50$ 년의 노령화 지수는 120이다. 따라서 $t+50$ 년의 유소년 인구는 25a명이고, 그로 인해 부양 인구는 45a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갑국 t 년의 전체 인구를 100a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기별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구분	t 년	$t+30$ 년	$t+50$ 년
노년 인구	10a	20a	30a
부양 인구	70a	55a	45a
유소년 인구	20a	25a	25a
전체 인구	100a	100a	100a

〈선지 분석〉

- ① A 기간에 유소년 인구($20a \rightarrow 25a$)와 노년 인구($10a \rightarrow 20a$)는 모두 증가하였다.
- ② B 기간에 부양 인구는 감소($55a \rightarrow 45a$)하고 노년 인구($20a \rightarrow 30a$)는 증가하였다.
- ③ A 기간($10a \rightarrow 20a$)과 B 기간($20a \rightarrow 30a$)에 증가한 노년 인구(10a)는 동일하다.
- ④ 유소년 부양비는 $t+30$ 년이 $(25/55) \times 100$, $t+50$ 년이 $(25/45) \times 100$ 으로 유소년 부양비는 $t+50$ 년이 $t+30$ 년보다 크다. 따라서, 유소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는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t+50$ 년이 $t+30$ 년보다 크게 나타난다.
- ⑤ 부양 인구는 $t+30$ 년이 55a명, $t+50$ 년이 45a명으로 $t+50$ 년이 $t+30$ 년이 작으므로 부양 인구와 부(-)의 관계에 있는 노동력 부족 정도는 $t+50$ 년이 $t+30$ 년이 크다. 노년 부양비는 $t+30$ 년이 $(20/55) \times 100$, $t+50$ 년이 $(30/45) \times 100$ 으로 $t+50$ 년이 $t+30$ 년보다 크므로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는 세대 간 갈등 정도는 $t+50$ 년이 $t+30$ 년이 크다.